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

양희은·강석우의

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004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알바의 여왕

008 이달의 편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외

052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

안산시 어린이는 우리가 지킨다

05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친환경 제품,
친환경 성장 추구하는 녹색기업

065 가족사랑수기

거북아, 사랑한다 외

076 아버지의 육아일기

딸의 외출

079 성장보고서

"승국이 입장이 되어 보게나"

082 부부클리닉

팔불출이 박 총무의 멘토링

086 우리나라 구석구석

영양만점의 숨은 여행지

090 대중문화 산책

시트콤,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여유

092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강원도의 겨울나기

094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잘 쉬는 법

096 강PD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엄마를 위해 울어주는 딸

098 한 장의 생각

피에르 보나르의 〈욕조 속의 누드〉



2009.11 + November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입니다 진행_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_이은주, 강성아 방송
_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MBC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
화_02-368-1500~3, 문의_02-789-1339 주소_(150-604) 서울 여의도우체국 사서
함 400호 여성시대 표지_안홍범

여성시대/월간지/비매월/2009년 11월호 발행_2009년 11월 10일 발행인_(주)문화방송 대표이사_엄기영 등록번호_라-5413 편집·
제작_B&M 커뮤니케이션(02-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관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2009.11 + November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알바의 여왕

부산 동래구의
최미진 씨를 찾아서



친구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은 ‘알바의 여왕’입니다. 스무 살 때부터 시작한 알바인생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주방 · 서빙 · 공장일 · 피시방 · 변호사 사무실 · 마늘 까기 · 편의점 등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습니다. 하물며 호주라는 먼 나라에 가서도 알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도착한 호주. 제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날개를 달고 싶어 날 아간 곳이었습니다. 일 년 동안 그곳에서 낮에는 호텔일,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로 돈을 벌었습니다.



제 소원은
단 하루라도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봤으면...



더 많이 강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냐고요? 학교 등록금에 부모님 생활비로 모두 들어가지요. 칠십이 훌쩍 넘은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 드리는 일이 제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 이십대를 통 털어 소원이 하나 있다면 '단 하루라도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봤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암울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난 왜 하루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돈을 더 받기 위해 야간 알바를 해야만 하나...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을 땐 세상이 온통 캄캄하기만 하답니다.

하지만 내겐 부모님이 계시고 젊음이 있는데 뭐가 두려우라 생각하면 불끈 힘

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전 다음 달이면 또 호주로 날아갑니다. 훨훨 날아보려고요. 거기 가서도 여전히 알바인생을 이어가겠지만 그래도 다른 세상에서 한 일 년만 더 살아보렵니다. 돈도 모아 다시 돌아왔을 땐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인생도 설계해보려고요.

오늘도 편의점에서 일하며 팬더곰 같은 다크서클과 매일 먹는 컵라면에 찌들어 살지만 제 영혼은 한 뼘씩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강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도 제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깐요! ♥

Letter 01_ 제가 왜 그랬을까요?

Letter 02_ 아내의 사표

Letter 03_ 이주민 자원봉사

Letter 04_ 나와 행복의 거리

Letter 05_ 어부의 딸

Letter 06_ 딸과 떠난 2박 3일

Letter 07_ 자전거 여행

Letter 08_ 대리기사의 애환

Letter 09_ 내 인생의 한 사람

Letter 10_ 보고 싶은 고모부

Letter 11_ 벽에 핀 꽃

Letter 12_ 선산 5일장

Letter 13_ 눈물의 온열매트

• 일러스트 박지현



제가 왜 그랬을까요?

글_김애경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아 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친정엄마한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쳐서 119에 실려 병원에 왔다.”

아버지는 환갑이 훨씬 지났지만 평소 건강한 편이라 너무 놀라 큰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많이 다치셨어요?”

“응, 좀 다쳤어.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데 엄마는 통 못 알아들겠으니 네가 좀 와야겠다.”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와 양손에 온통 붕대를 감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딸을 반색하며 맞이해주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다 이렇게 다치셨어요?”

두 분께 물어봐도 어색한 표정만 지을 뿐 이상하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다행히 뼈는 상한 곳이 없고, 넘어질 때 땅을 짚은 양손과 한쪽 다리에 심한 타박상과 찰과상만 입어 바로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한숨 돌리고 나서 아버지가 다친 이유를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수도권 소도시에서 가정식 백반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식당을 운

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자 10대로 보이는 남자 아이 셋이 들어와 김치찌개 3인분을 시켰다고 합니다. 밥이 나오자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을 유심히 보니 형제간인지 친구 사이인지는 몰라도 초등학교이나 중학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지 머리를 샅노랗게 염색을 하고, 귀에는 귀고리를 여러 개 주렁주렁 달고 옷은 때에 절여있더군요.

아이들의 행색에 의심을 품은 아버지는 엄마에게 “아무래도 가출한 애들 같아. 밥값 안내고 도망갈지 모르니 당신이 잘 살펴요” 하고 당부했답니다. 그래서 밥 먹는 내내 엄마가 살피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쩐지 엄마 눈치를 흘끔흘끔 보면서 밥을 먹더랍니다.

그러다 아버지와 엄마가 밀린 점심 설거지를 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아이들은 밥을 반 공기쯤 먹다 말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식당 밖으로 도망을 치더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애들에게 밥값 1만 2000원을 받겠다고 뒤쫓아 가다가 넘어져 다친 상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 말을 하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화가 잔뜩 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 오늘 그 녀석들을 경찰서에 고발해 버리려다가 겨우 참았다.”

“엄마, 그 어린애들이 배가 고파서 찾아왔으면 돈 받지 말고 따뜻한 밥 한 그릇씩 먹여 잘 타일러 집에 보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슴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라 따지듯 묻자 엄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차 이제 그만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입에서는 큰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 보세요. 그 애들하고 똑같은 나이의 손자·손녀도 있는 분들이 굶고 다니는 애들이 밥 먹다 말고 도망갈 때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밥집을 하면서 찾아오는 배고픈 애들 밥 한 그릇도 베풀지 못 할 거면서 산꼭대기에 있는 절에는 뭐 하러 꼬박꼬박 다니세요?”



제 말을 듣고 엄마는 얼굴빛이 흐려지면서 눈물을 짖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처음엔 경황이 없다가 나중에 그냥 한 끼 먹여보낼 걸 하는 생각을 했어. 어쨌든 부모가 다 못 나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만 이야기하고 너도 수고했으니 이제 집에 가 봐.”

이튿날 엄마 가슴에 저는 마지막 남은 독화살 한 발을 쏘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랬으면, 어쩔면 아박한 인심 때문에 벌 받아서 다친 건지도 모르겠네요 뭐. 저 이만 갈게요.”

집에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데도 자꾸만 눈물이 나와 한적한 역에 내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요?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 제일 놀란 분들은 부모님일 텐데, 그래서 왜 다쳤는지도 선뜻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만큼 아버지·어머니도 뻔히 느끼고 있는 걸 왜 저는 그렇게 못을 박듯이 콕콕 아픈 속을 꺼내서 헤집어 놓았을까요?

부모님은 소박한 밥장사를 40년도 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장사 10년 만에 빌딩을 샀네, 집을 샀네 하는 이야기도 듣지만 저희 부모님은 40년 동안 6남매나 되는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데 다 쓰고, 지금까지도 편히 쉴 집 한 채 없이 가난하게 살고 계십니다.

엄마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끓는 물에 데는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을 사다 바르고, 아버지는 설거지를 하느라 손도 엉망이고 신발이 나옴도 다 해지도록 입으며 “깨끗하게 빨아 입으면 그만이다” 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니 갑작스레 닥친 사건에 애들이 먹은 밥값 1만 2,000원이 너무 크다는, 오로지 ‘돈’ 한 가지 생각만 들었을 겁니다.

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끝낸 후 아버지는 ‘손자 또래의 아이들인데 처음부터 맘 편히 먹여 보낼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여러 번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치고 다친 몸도 힘든데 자식들 가운데 큰딸이 와서 위로는커녕 독설을 내뱉고 가 버렸으니 지금 얼마나 서러울까요?

동갑인 두 분은 환갑을 훌쩍 넘긴 연세지만 아직도 식당일을 하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절대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온통 부모님만 생각나고 몸도 마음도 큰 상처를 받은 아버지·어머니한테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몰라 깊은 밤이 되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같이 못된 딸 하는 딸에게 부모님이 큰 소리로 욕이라도 실컷 하셨더라면 차라리 제 속이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아버지! 제가 속에 없는 말로 두 분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철들면서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묵묵히 부모의 역할에 충실한 두 분이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꼭 찾아뵙고 이번 일에 대해서 제대로 용서를 구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



아내의 사표

● 글_이기호 | 대전시 서구 갈마동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두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마, 농담이겠지’ 하는 마음에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 당신도 쉴 때가 됐지. 쉬어. 내가 책임질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언장담이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내는 얼마 전, 21년이나 근무한 대학병원 수간호사 직을 훌훌 털어버리고,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개전장군처럼 “속 시원하다”는 전화편트를 날렸습니다.

남들은 IMF에 버금가는 경제난이라며 걱정하는데 속 시원하다니요. 아, 정말 괴로웠습니다. 대학 1학년인 큰딸과 이제 고3인 둘째딸이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연봉도 꽤 되는 일자리를 건어차다니요.

물론 아내의 말처럼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던 제 잘못이 크지만, 사실 전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남자의 마음이란 다 그렇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선 대학생 두 딸 뒷바라지를 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물론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대학입학하고 결혼하자는 아내였습니다.

아내와 동갑인 저는 아내의 성원에 힘입어 27세에 대학에 입학해 그 해 겨울에 결혼했습니다. 이듬해 큰딸이 태어나고, 연이어 작은딸까지 낳았습니다. 3

교대 병원근무를 하면서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아이들과 저를 위해 헌신적이었던 아내입니다.

처녀 땀 한참 땀 부리며 못 남성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던 아내였는데, 저와 결혼 후 자기 치장 대신 두 딸들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좋은 옷 · 외식 · 여행 등을 외면하고 오직 저와 두 딸을 위해 살아온 아내의 몸은 온통 수술자국뿐입니다. 직업병인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두 딸 낳느라 제왕절개를 했으며, 맹장과 왼쪽 가슴에 난 종양제거, 마지막으로 치질수술까지 몸 안팎이 완전 리모델링한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가정을 위해 살아온 아내의 울타리를 방패삼아 온실 속 화초처럼 저는 마음껏 자유를 누렸습니다.

결혼 전, 아내에게 헬리콥터 사서 태워주겠다는 허풍과 결혼 10주년마다 환상의 파티를 열어 주겠다는 제 약속은 결혼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내에게 허풍만 떨 뿐이지요.

그래서 이번 아내의 사표 사진은 제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내의 그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가 직장 다닐 땐, “그까짓 것 별면 얼마나 별겠냐?”며 호기를 부렸는데, 이것이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 가장으로서 민반의 준비를 해서 부양할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제 맘의 이중성이 가져온 결과인지라 되돌릴 수 없는데, 자꾸만 “속이 시원하다”는 아내의 말이 솔직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맘은 이 순간에도 아내에 대한 염려와는 달리 한 편에선 아내의 퇴직금에 눈길이 가는 속물근성을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1년간 고생한 아내를 위해 남은 생을 보답할 겁니다.

‘여보, 이제 쉬면서 당신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



이주민 자원봉사

● 글_우효은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원주로 시집은 지 5개월째 된 새댁입니다. 여기로 시집 와서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견디기 힘들었고, 아는 이 하나 없는 이곳이 너무나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신문을 보다가 저처럼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안통하는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분들과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도 돌아오는 건 “네”라는 간단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친해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제가 시집와서 겪은 일들을 비교해가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면’을 설명할 때도 “여러분! 제가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남편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해요. 밥 먹고 ‘나면’ 신랑에게 설거지를 하자고 해요.” 이런 식으로 결혼생활을 예로 들어가면서 수업을 하고, 수업시간에 태도가 좋은 사람은 스티커를 주고 학기 끝날 때 상품이 있다고 하니 모두 “오 예” 하며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만나면 서로 포옹을 하면서 지난밤에 잘 지냈는지, 아침은 먹었는지 등 소소한 일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제가 하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가방을 한 아름 들고 교실에 옵니다. 저는 그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수업시간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엔 신랑이 “여보, 외국인에게 자원봉사하니깐 어때? 힘들진 않아?”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힘들진 않은데, 조금 어렵네”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자원봉사는 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얼굴을 볼 때마다 “선생님!” 하고 다가와 웃으면서 포옹해주는 마르페 씨. 이제 막 돌이 지난 미진이를 유모차에 태워 먼 길을 걸어오면서도 힘든 기색 없이 저를 보면서 “선생님, 반가워요!” 하며 웃어주는 베비리 씨.

그들은 그렇게 매일 외국인에 대한 제 편견을 없애주었고, 외롭고 힘들었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피부색만 다를 뿐 몸과 마음은 이미 한국인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추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명절을 몇 번 지내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지도하고, 운영하는 대표님과 선생님들께서 조만간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1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버스 두 대와 승용차 한 대에 나눠 타고 놀이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해 단체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들에게서 정말 행복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애기 엄마들은 아이를 안고 남편 손을 잡고 여기저기 구경하기 바빴고, 남자분들은 같은 고향사람들과 호탕하게 웃으면서 놀이기구들을 바라보며 행복해 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으며 한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의 뿌리가 필리핀 · 베트남 · 중국 · 우즈베키스탄일지는 몰라도 몸통과 잎사귀는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가을 단풍나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붉게 물들어 가듯 그들 또한 아주 조금씩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매일 수업을 해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시는 조주연 선생님, 박세란 선생님, 한미희 선생님, 최연수 선생님, 장희선 선생님 등 모든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



나와 행복의 거리

● 글_안영희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저는 ‘행복’이란 글자와는 거리가 먼가 봐요. 4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도 일찍 헤어져 살았고, 할머니·삼촌·숙모님·동생들이랑 살 때도 행복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갓 스무 살에 열 살이나 연상인 서른 살 된 남편이랑 결혼해 44년을 살아오는 동안 ‘행복이란 글자는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하고 생각하며 살았지요. 남편은 젊었을 때는 술로 속을 많이 썩이더니, 늙어선 뇌졸중에 걸려 13년째 서로 힘들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73세 뇌졸중 환자인 남편과 살자니 너무 힘듭니다. 때론 남편이 아니라 ‘원수’ 같습니다. 성질내고 사람 고생시킬 땐 저도 사람이기에 나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지요. 차라리 빨리 저 세상으로 가주기를 바라는 못된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남편이나 저는 종교를 안 믿습니다. 지은 죄도 많고요. 남편은 마누라 속 썩여서 지옥 갈 것이고, 남편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으니 저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남편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종교를 안 믿는 것은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그런 곳에 가서 ‘우리 남편 오래오래 살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우리 남편 빨리 죽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종교를 안 믿습니다.”

남편이 처음 쓰러졌을 땐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다니며 침도 맞고, 약고 먹고 재활치료도 받고 좋다는 것은 다하다 보니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70이 넘으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전립선이 안 좋아 소변 때문에 고생하고, 또 변비와 왼쪽 손발이 마비된 탓인지 다리가 시리다고 짜증을 냅니다.

올 여름에는 6월부터 한 달간 병원에 다니다가 여름을 다 보냈지요. 남편은 허리랑 오른 손목, 또 다리가 시리다고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게 했습니다. 선풍기도 마음대로 못 틀었지요. 저는 숨통이 막힐 것 같아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 그것도 못 참느냐고 성질을 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지난 여름 내내 남편의 허리와 손목 그리고 침을 흘리는 문제로 한의원에 가 침을 맞았습니다. 한의원에는 손님이 많아 일찍 가서 온 순서대로 번호로 자리를 정합니다. 7시 반쯤 가서 9시부터 시작하는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도 침을 맞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집에 있으면 남편이랑 싸워야 할 뿐더러 더운데 문도 마음대로 못 열고 선풍기도 틀지 못한 채 하루종일 아프다는 소리만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 꼴을 안 보려면 한의원에 가서 몇 시간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이쭤마들이랑 얘기도 하고 듣고 하면 시간도 잘 가고 해서 저도 침을 맞기로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차 운전이 서툴지만 멀어서 걸어갈 수는 없으니 남편은 운전하고 저는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면서 “가시오”, “서시오” 해가면서 밀었다 당겼다 하며 다녔지요. 가방에는 다리가 시리면 덮어준다고 큰 수건과 소변통도 넣어서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원 다니는 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침을 맞으러 다닐 때 남편과 같이 갈 때도 있고, 제가 오전에 먼저 갔다 올 때면 남편은 오후에 가곤 했습니다.



니다. 그러다보니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여름에는 병원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놓았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다리가 시리다고 인상 쓰고, 병원에 안간다고 떼를 쓰고, 병원에서는 빨리 집에 가자고 조르니 나이 값도 못 하는 쪽 어린애 같았습니다. 남편은 21번, 저는 33번 침을 맞고 그만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 목욕을 시키다 보니 왼쪽 종아리 피부가 발갛게 되어 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 맞으러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돌을 전기에 꽂아 열을 가해 수건에 싸서 다리 밑에 놓았는데 만날 다리가 시리다고 해서 2개를 놓아달라고 했지요.

남편은 파자마도 입고, 내의도 입고, 발 토시도 했고 바지도 입었는데 언제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뜨겁다고 했었는데 옷을 많이 입어 화상을 입는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 화상을 입은 것을 몰랐나 봐요. 그렇게 다리가 붉았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연고랑 약을 타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는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이 빠르겠다고 소견서를 써주셨으나 입원하면 돈도 더 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 힘들더라도 매일 통원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동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면 20분쯤 걸리는데 화상이 깊어서 2주나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오고 가고 기다리고 하다보면 1시간이나 더 걸릴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남편은 만날 다리가 시리다고 난리였습니다. 소변도 금방 누었는데 또 보고 싶다고 하고, 치료할 때마다 침대에 누울 때 도와주어야 하고, 신발을 벗기고 옷 올려 주고, 약 타러 다녀야 하고, 약 먹을 시간 챙겨야 합니다. 또 수시로 물 따라주어야 하고, 몇 번씩 손목에 파스 발라봉대 감아야 하고, 저녁엔 오른쪽 손목에 얼음찜질을 해야 하고, 밤엔 자다가도 화장실 간다고 몇 번씩 잠을 깹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드니 제가 병이 안 나겠어요?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자주 영양제를 맞게 되네요. 아픈 몸을 이끌고 약 먹고 주사 맞아가며 화상치료가 32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전동차 운전이 서툴러 실수도 몇 번 했지만 병원에 다니느라 운전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나 따라다니는 내 마음은 늘 조마조마했지요.

한번은 약을 사러 갔다 오니 남편이 온 데 간 데 없어졌어요. 너무 놀라 사방 팔방 찾아다니다 이는 아저씨가 계셔서 물어 보았더니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뒤따라오는 줄 알았다가 나중엔 시장엘 갔나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말도 안 하고 가서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이젠 환자보다 간병인인 제가 더 아프니 언제까지 이려고 살아가야 할지 기약 없는 나날입니다. 행복이란 글자가 나와 사촌만 되어주어도 행복하다며 살아갈 텐데요. 돈 들고 고생하고 그래도 살아 있다는 것이 행복인지는 모르겠네요. ♥



어부의 딸

● 글_주경심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60년 어부 인생, 아버지가 직접 낚은 삼치입니다. 그걸 딸 준다는 생각으로 직접 손질하고, 소금 간을 해서 하루 정도 말렸고요. 3분 정도만 물에 불렀다 찜통에 찌면 되고요. 불렀다 살짝 구워 드셔도 맛있습니다.’

문구를 작성해 놓고 몇 번을 고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버지의 고목 같은 손만이 말해주는 그것, 수돗가에 앉아 생선을 손질하는 작아진 어깨와 땀벌에 앉아 하루종일 삼치를 뒤집어가며 말리는 아버지의 손 위로 매정하게 쏟아지는 햇볕, 그것들을 보여주지 못함이 그저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어부의 딸로 살아온 지 어느새 서른다섯 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른다섯 해 만에 처음으로 어부의 딸다운 예쁜 짓을 해보려 합니다.

아버지에게선 항상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나는 아버지가 배를 허는디 물괴기를 싫어 허른 굶어 죽었다는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유난히 생선을 싫어했지요. ‘머릿속에 깨가 서 말’이라는 전어도 싫어했고, 통째로 삶아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둘이 먹다 둘이 나자빠져도 모른다는 오징어도 별로고요. 젓갈 삭히는 냄새는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다듬어서 보내주는 생선이 그저 공짜로 생기는 것이고, 가끔 해 먹기 귀찮은 천덕꾸러기가 되어도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으로 여겼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삼치를 낚습니다. 손으로 낚싯줄을 잡고 하루종일 있다 보면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배는 어딘지도 모를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가기

십상이라고 했습니다. 삼치 잡느라 몸살이 나셨다는 아버지를 위해 몸보신하라고 고기 두어근 값을 부치면서 속으로 ‘누가 잡으랴’ 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서 냉동실이 터질 만큼 구석구석 자리 잡은 삼치들을 보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걸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아버지께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뜬금없이 “삼치 맛이 워떠트냐?” 하고 물었습니다. 생전 가야 찬거리 보내놓고 맛이 어떠냐고 묻는 법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찬거리를 그저 맛있게 먹겠거니 하는 딸에 대한 믿음보다는 찬거리를 보내는 그것만이 아버지의 권리라는 것 같았습니다.

두어 마리 찢서 먹긴 했지만 항상 먹던 삼치 맛이니 귀한 줄을 알겠습니까, 맛난 줄을 알겠습니까. 그저 제 입에는 삼치 맛이 거기서 거기였으니 딱히 그럴싸한 대답이 생각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잘 먹었어요.”

“그랴? 맛은 없드냐?”

“왜요?”

“아니, 그냥. 저기 말이다잉.”

거센 파도에도 외눈 하나 꿈쩍 않던 아버지가 웬일인지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주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삼치가 나기는 많이 나는데, 사는 사램이 없어서 말이다.”

35년 어부의 딸이면 이쯤에서 눈치를 챌어야 하는데, 또 삼치를 보내주시려나 싶어 “엇그제 보내주신 것도 그대로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애끼지 말고 어서어서 해 먹어라. 또 보내줄 텐께” 하셨습니다.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라 더디해 먹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예.”

마지못해 대답을 해놓고 나니 아버지가 재차 물어오셨습니다.

“근디, 맛은 있느냐? 없느냐?”

“맛은 있지요, 당연히. 아버지가 해주신 건디.”

역시처럼 대답을 해놓고 나니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아버지께서 말 씀하셨습니다.

“그려? 맛이 있어? 그러믄 잉.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땡글어서 보내믄 니 가 한 번 풀어볼라냐 싶어서. 값은 많이도 말고 지름 값이나 받으면 되지 뭐.”

생전 처음으로 딸에게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오신 생선을 엄마가 함지에 이고 여수장에 내다 팔 때도 그것이 두 분이 할 일이라니 생각했습니다. 생선을 팔고 남은 빈 함지에 엄마가 사오던 과자랑 밀감을 먹는 것이 제 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요.

열심히 팔아보겠다고 해야 하는데, 팔려 가는 송아지처럼 대답이 자꾸 뒷걸음질 치려고 했습니다. 장바닥을 손바닥처럼 휩쓸고 다니던 생선장수 엄마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안 밟아본 땅이 없는 장사꾼의 아내이자 하고 있는 일도 결국엔 장사인 제가 ‘장사’라는 말 앞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저 받아먹는 것을 누가 돈 주고 사랴’ 싶었습니다. ‘가끔은 먹기 싫어 냉동실에서 전기요금만 잡아먹히다가 내다 버리는 것을 누가 사 먹겠냐?’ 싶었습니다.

“아니다. 나가 돈 벌랴, 아이들 키우랴, 공부까정 허는 니헌티 맥없이 말을 했는갑다. 폴 데가 없으면 안 잡으면 될 것을...”

제 마음을 아신 것처럼 아버지는 금세 당신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혹시 살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안녕히 주무시라며 전화를 끊는데 누가 사겠나 싶은 머릿속과는 달리 가슴은 돌이라도 올려놓은 듯 콧하고 막혔었습니다.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생선을 팔아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왜 이제껏 단 한 번도 내 아버지가 생선을 팔아 나를 키우고, 손자들 과자 값을 쥐어준다는 걸 알지 못했는지요. 왜 아버지가 주는 돈은 그저 도깨비방망이 휘둘러서 생긴 공

돈으로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책을 사야 한다는 제 말에 아버지는 겨우 열 살인 어린 제 손에 낚지 양동이를 쥐어주셨습니다. 그걸 팔아 책값을 하라는 뜻이었죠. 어판장까지만 가지고 가면 알아서 팔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지폐보다 무겁고, 지폐보다 더 손이 시린 그 양동이를 길에다 부어버렸습니다. 낚지는 그곳이 물인지 바다인지도 모르고 돌 틈을 향해 몸을 숨기기 바빴고, 전 뽕뽕 얼어버린 두 손을 붙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냥 돈으로 주면 되잖아요?” 하고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돈보다 질척거리는 그물을 끌어올려 생선을 잡고, 돈보다 무거운 낚지를 내다 팔아야 한다는 걸 그땐 몰랐으니까요. 그 뒤로 아버지는 제 손에 두 번 다시 갯물이 줄줄 흐르는 양동이를 쥐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재워 놓고 냉동실을 열어 아버지가 보내주신 삼치를 꺼냈습니다. 금세 하얗게 내려앉은 얼음가루를 털어내고 앞뒤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쭤마들이 많이 드나드는 중고품 사이트에 아버지의 생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적었습니다. 삼치 얘기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60년 어부 인생 내 아버지가 직접 낚으신 삼치입니다. 내 딸 준다 생각하며 다듬고 소금으로 간해서 청정바다 해풍으로 말린 겁니다. 마리당 비스킷 하나 값도 안 됩니다.’

문구를 작성하고,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적지 못한 한 마디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팔기만 하던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낚아 오신 삼치를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삼치를, 딸의 마음을 사줄 사람을 말입니다. ♥



딸과 떠난 2박 3일

● 글_도설희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작은딸과 나에게 같은 날에 시간이 생겨 딸아이에게 이모가 되는 멀리 떨어져 사는 여동생 집에 가기로 했다. 단둘이 기차여행을 하는 게 처음인 지라 나는 무척 설레었다.

내가 작은딸 나이쯤엔 기차여행에 대한 동경이 아주 컸다. 그래서 지금도 기차만 보면 철길 가에 서서 기적소리 울리며 요란하게 떠나는 기차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하얀 교복을 입고 양갈래로 머리를 땀은 내가 보이는 듯하다.

지금은 태어나기만 하면,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로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들을 통해 이런 저런 간접 여행을 많이 하는 세상이며 쉽게 떠나고 쉽게 오갈 수 있는 세상이어서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의 범위가 커졌다. 하지만 내가 어릴 땐 기차를 탄 게 아주 큰 자랑거리였다. 서울에 갔다온 얘기며 방학 때 친척집에 다녀온 얘기 등은 정말 며칠 동안의 자랑거리였다.

작은딸은 “김밥 싸가지고 갈까? 초밥을 싸까? 계란도 삶을까? 포도는 한 알 씩 떼어서 썰은 다음 가지고 가자. 오징어도 가지고 가야지. 음료수랑 과자도 좀 사자” 하고 부산을 떨었다. 그러다가 당일 날에는 “무거운데 김밥은 먹고 가자. 과자는 열차 카페에서 사면 되지” 하며 은근히 게으름을 피우는 나에게 빙긋이 웃어주었다.

출발하기 전날, 나는 친정엄마를 일찍 여원 동생이 안쓰러워 밑반찬이랑 반찬거리를 친정엄마처럼 챙기기 시작했다. 아무리 챙겨도 엄마가 나에게 챙겨



다주신 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딸이랑 도란도란 유익한 대화도 많이 하고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딸아이에게 또 나에게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지’ 했던 다짐도 무색하게 기차를 타니 잠이 쏟아졌다. 딸아이도 피곤해 보여서 우리 일단 ‘한숨 자자’ 하고는 둘이 마주보고 웃었다. 그러고는 한참을 이리저리 덜컹거리며 잠을 잤다.

열차 안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잤다. 나는 열차든 버스든 택시든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서 내린 적이 많았다. 잠이 들어서 그런 적도 있지만 생각에 잠겨서 깜박한 적이 많아서 도착할 시간쯤에 알람을 맞춰두었다. 한숨 자고 부스스 일어나니 내려야 할 때가 가까워 조금 서운했지만 ‘돌아오는 길이 있으니’ 하고 위안을 삼았다

동생은 옷가게를 운영한다. 손님들과도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아주 참하고 깔끔하며 세련된 가게여서 동생이 아주 기특한 한편으로 언니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싶었다. 실제로도 동생보다내가 더 아무지지 못하다.

마트에서 시장을 봤다. 다음 날 이런 저런 밑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제부가 “굴밥을 먹으러 가지 않겠느냐?”며 데리러 왔다. 딸아이와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굴밥을 먹는 게 내키지 않았다. 나와 딸아이는 굴이 묻어있는 김치도 잘 먹지 않는다.

어쨌든 제부의 성의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는 길이었지만 주변 경관이 너무 좋았다. 여기저기 내 고향과는 다른 집들의 지붕모양이 재미있었다. 충남의 해안가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달려서 바다와 갯벌이 보이고 뒤로는 아산인 조그만 평지에 자리한 굴밥집에 도착했다.

반찬이 독특했고, 굴밥은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양도 적당해 “너무 맛있네. 다음부터 먹어도 되겠다. 그지?” 딸아子和 내가 주고받는 말에 제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하. 외부 손님들도 대접해드리면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했다.

잠깐 외출한 제부가 학교로 돌아간 뒤 딸아이에게 급한 일이 생겨 일정을 하루 당겨 출발했다. 동생이 “언니야, 이렇게 일찍 갈 거면 뭐 하러 왔노? 며칠 있다가 갈 줄 알았는데...” 하며 섭섭해 하여 마음이 아팠다.

친정 식구는 오래 머물다 가도 섭섭하고, 빨리 가도 섭섭하다. ‘친정엄마처럼 집안 청소랑 빨래랑 다해 주고 와야지’ 생각했던 나도 이쉬웠고, 나중에 학교에서 돌아온 조카들도 “이모랑 누나 부산에서 여기까지 겨우 하룻밤 자려고 했어요?” 하며 섭섭해 했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에 친정에 들렀다. 엄마 산소에는 잔디가 아주 예쁜 풀색으로 자라고 있어서 보기에 좋았다. 딸아이는 작년 겨울 황토색이었던 산소를 본 후 산소에 온 게 처음이라 “할머니, 현주 왔어요. 할머니 산소 너무 예쁘다” 하며 사진을 찍어서 언니에게 보내주겠다고 아주 좋아했다. 엄마 산소 한쪽 옆에는 나중에 아버지 모실 자리가 비어 있다. 비어 있어서 엄마가 허전하시겠다 싶기도 하지만 미루어둔 못 다한 효도가 가슴 아픈 날에는 ‘아버지는 낙천적이신 분이니 오래 사시겠지’ 하며 위안을 삼는다.

나는 대구에서 볼 일이 있어 좀 더 지체를 하고 딸아이는 먼저 내려갔다. 기다리던 딸아이와의 2박 3일은 각각 귀가했지만 즐거웠다. ♥



자전거 여행

● 글_곽동운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저는 서울에 사는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자전거로 전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단독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일정은 무려 17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올해 제 나이 35세. 제 친구들은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데,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라 그런지 펀드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에 대화의 초점이 맞춰지더군요. 그럴 때면 전 그냥 애꿎은 소주잔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뭐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그들의 말만 듣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직장은커녕 결혼도 못 했고, 오늘도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 나가야 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있었던 시험도 다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찾아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로 전국여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렸을 때,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리더군요. “수험서 살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돈으로 여행을 가느냐?”는 소리부터 “수원도 못 가서 전철로 되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별의별 걱정스런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만큼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첫 폐달을 떼기가 힘들더군요. 텐트와 코펠 같은 야영장비와 여행가방 등을 잔뜩 실었던



터라 자전거가 잘 안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덜컹거리는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았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의 스피드는 최고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는데 인생길도 이런 거겠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뭐 그런 거겠죠. 물론 지금이야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이지만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페달을 열심히 밟았습니다. 페달을 밟다보면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일, 슬펐던 일, 행복했던 일, 불행했던 일... 좋았던 사람, 싫어했던 사람, 고마운

사람, 사랑한 사람...

여행은 서울에서 시작해 수원 · 천안 · 공주로 이어졌습니다. 충남 공주에 유구라는 곳이 있더군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멋진 펜션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어느 한 펜션에서 가족들이 정답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와 그의 아내가 재잘거리는 꼬맹이들을 데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풍광에 취했는지 아니면 그 정다운 가족들의 모습이 부러웠는지 제 눈가에서는 눈물이 흐르더군요. 처음에는 눈가에 그저 몇 방울 이슬이 맺혔지만 나중에는 그냥 펄펄 울었습니다.

여행은 공주와 익산 · 고창 · 함평 · 목포를 거쳐 제주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목포에서는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에 입항을 했지요. 17일 동안 이어진 여행 동안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식량과 식수는 거의 공짜로 얻어 마셨습니다. 펍크가 난 타이어를 거의 공짜로 고쳐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도움과 격려를 받으면 없던 기운이 번쩍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도움과 격려 덕분에 전 무사히 전국일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여성시대도 제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전과가 잘 안 잡혀서 매일 듣지는 못했지만 종종 여성시대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곤 했으니까요. 무모하게 시작하여 중간 중간에 위험한 상황도 많이 겪은 여행이었지만 정말 잘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페달을 밟으며 많은 생각을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마음도 잘 정리했습니다.

뭐 정리라고 해서 거창한 게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일에 충실하자!' 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올해 시험에는 다 떨어졌지만 내년 시험에는 꼭 붙을 겁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오늘도 저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대리기사 of 애환

● 글_애청자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손님, 어디에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손님이 계신 곳으로 달린다.

20여 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며 받은 퇴직금을 잘 아는 사람의 땀에 빠져 두 투자했다가 피 같은 돈을 한 푼도 못 써보고 한순간에 날려 버렸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며 고민하니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5킬로그램이나 빠져버렸다.

체중은 둘째 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생겨 밤이면 악몽과 함께 극한 생각이 떠오를 때면 실행에 옮기려 다가가도 노모와 아내, 자식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을 때가 여러 번이었다. 아내가 허드렛일을 하며 벌어들여 오는 수입으로 대학생 등록금과 중학 생과외비도 막히 힘든 실정이다. 거기다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절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이렇게만 살 수 없어 할 일을 찾아보러 나섰지만 오십이 넘는 나이에 직장을 찾기는 어려웠고 지하철 행상 등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무슨 일이든 해 보려 했지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기술이 없어도 운전만 할 수 있으면 하루에 5만 원은 벌 수 있다고 권유해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에는 캘린더에 빨간 글씨가 그렇게 반가웠지만 이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색깔이 되어 버렸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으레 가족과 함께 야외도 나가고 외

식도 하던 일들이 이젠 나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되었다.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쉬지 않고 밤을 낮 삼아 일한 지 1년이 되었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즐겁게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특히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님을 기다릴 때면 ‘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알까?’ 하는 생각을 하며 부럽기도 하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사는 이야기도 듣고 왜 대리기사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간혹 물어 오는 이들에겐 말하기 싫은 기억이지만 내 처지를 말해 줄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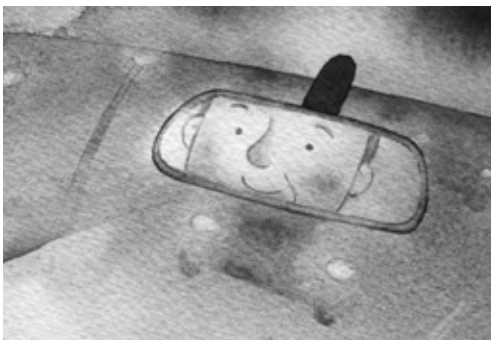
지난해 겨울,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도 없는 구석진 곳을 들어갔다가 추운 날씨에 1시간 이상 걸어 나오며 ‘내가 지금 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지난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밤이슬을 맞으며 견고 있구나!’ 하는 후회의 긴 한숨과 함께 눈물을 주룩 흘린 적이 있다.

인사불성이 되어 집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잠이 들면 술 취해 잠든 이를 깨워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감정 조절이다.

대리기사에겐 무조건 반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 키를 주면서 어디에 가면 차가 있는데 차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 외제차를 소유한 손님이 “이런 차 운전해 봤어요?” 하는 건 애교에 속한다.

지리를 잘 몰라 손님이 원하는 길을 지나쳐 조금이라도 우회하게 되면 “아저씨, 대리기사가 길도 몰라?” 하며 나보다 한참 어린 손님이 반말로 들어대면 속에서는 불이 올라오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해도 이성조절이 안 되는 손님은 “차 세워! 당신 내려. 길도 모르는 게 대리에는 왜 해?” 하며 욕박지르며 요금도 못 준다고 으름장이다.

일부 대리기사들이 손님들의 무례한 행동에 자존심이 상해 그만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나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 일마저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



하니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참아야만 하
는 게 대리기사들의
애환이다.

그래도 그런 손님
보다는 “열심히 사시
네요”, “나중에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하고 위로해 주는 따뜻한 손님들이 더 많기에 힘을 얻는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지는 모르지만 밤마다 출근할 때 잘 다녀오라는 노모와 가족들의 나를 바라보
는 시선이 더 안타깝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간부로서 사회적 위치가 있던 아버지가 밤에 대
리운전을 하러 가는 걸 배웅을 하는 자식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미안할까 하
는 생각에 내 마음이 더 힘들다. 힘든 일을 해보지 않던 아내가 가끔은 불평을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참고 기다려 줘서 고맙다.

내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 다시 웃을 날이 곧 올 거다.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어렵잡아 우리나라에 대리기사가 12만~1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만나보면 나름대로 다사연이 있고 인생의 쓴 맛을 본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후죽순 생기는 후발 대리업체들의 덤핑 가격에 울고, 그들의 형포
(페널티 벌금: 오더를 받았다가 못 가는 경우 내는 벌금)에 울고, 이성을 잃은 손
님들의 말에 운다. 이들은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재기하려 몸부림치지만 사회
구조는 이들의 진입을 쉽게 허용할 여건이 아닌 것 같다.

전국의 대리기사 여러분! 당신들은 오늘도 음주를 즐기는 이들의 안전한 귀
가를 돕고 교통사고 예방에 보이지 않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갖
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



내 인생의 한 사람

● 글_이미영 | 총북 진천군 진천읍

제가 그 아저씨를 만난 것은 1993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아저씨와의 인연은 4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는 형편도 어
렵거니와 술을 드시면 주사가 심한 아버지를 벗어날 방법으로 산업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업고등학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돈을 벌며 공부를 하는 곳이구
나!’ 하고 생각만 했는데, 막상 제가 선택해서 간 산업고등학교는 차가운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기숙사 생활과 학교생활 그리고 3교대의 방직공장 생활은 나이도 어렸지만
유독 또래 아이들보다 왜소했던 150센티미터의 키에 작은 체격이었던 제가 버
터내기란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가족과 홀로 떨어져 생활하면서도 기숙사
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생활도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지만 체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장생활이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꼬박 일을 해야 하는데, 담당부서에 배치가 되어 가보니 눈
앞에 펼쳐진 것들은 컷속이 멍할 정도로 요란한 소음과 태어나 처음 보는 낯선
기계들이었습니다.

‘기계 다루는 법과 불빛이 보일 때 대처하는 법’, ‘빨강색은 이것의 오작동,
파랑색은 저것의 오작동’ 등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첫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

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전 그렇게 무시무시한 기계를 다룬 적도 없거니와 본 적도 없었거든요.

출근 첫날 퇴근 후에 기숙사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말이죠. 처음 산업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의 마음과는 다르게 너무나 힘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출근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조장언니가 전날 일러준 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누군가 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이리 와봐” 하면서요. 제 옆엔 50세가 조금 넘어 보이고 백발 스포츠머리에 긴 호랑이눈썹의 아저씨가 한 분 서 계셨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오늘부터 나하고 일하자. 나랑 일하려면 야무지게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저씨와 조장언니를 따라갔고, 그곳은 공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기계 소음이 전혀 없는 포장실이었습니다. 저는 포장을 하고 아저씨는 포장된 것을 박스에 담아 또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 모든 게 어리둥절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올 테니 너무 부담 갖지 마라” 하면서 “우리 막내딸이 너하고 동갑이다. 우리 딸은 여상을 다니는데 다음에 소개시켜 줄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인연이 되어 아저씨와 저는 환상의 콤비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대화도 나눴고요. 아저씨는 출근길에 여상에 다니고 있는 딸이 읽었던 소설책이라고 하면서 “너도 읽어봐라” 하고 가져다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딸은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인지 조금 무르다. 너는 회사생활하면서 공부하러니 힘든 거 안다. 그래도 책 많이 읽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많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간혹 일하는 중에 제가 실수라도 하면 공장 안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저를 꾸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저씨에게 야단을 맞으면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던지 ‘이 도깨비, 늑은 마왕, 변덕쟁이, 늑은 어우...’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했습니다. 물론 속으로요.

아저씨는 제게 “아직까지 성장기이니 잘 먹어야 몸도 건강하지” 하면서 “요즘 우리 딸이 이거 잘 먹더라. 그래서 사왔어” 하면서 “너도 이런 거 좋아하지?” 하고 햄버거를 주셨습니다. 그때 먹었던 햄버거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단도 많이치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던 아저씨였지요.

제가 고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보았던 친구들 중 졸업을 할 때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일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기에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고 사회로 나간 친구들이 많았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아! 나는 해냈어’ 하는 자신감이 생겼고, 저는 그 이후로 2년 더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야간대학에 입학했거든요. 아저씨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 “일이 힘들지만 대학졸업을 따라. 그게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라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제 두 손을 잡더니 “미영아! 그동안 성질 좋지 못했어 아저씨랑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 아저씨는 오늘까지만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IMF라는 게 그 전까지 제게 와 닿지 않았는데 실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아저씨가 명예퇴직을 하신 것이었어요.

벌써 10년 이상이 훌쩍 지났네요.

‘김재진 아저씨! 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예쁜 딸아이도 낳았고요. 그때 제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 시골에 들어가서 소를 키우실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잘 살고 계시겠죠?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저씨! 제 인생에서 한 사람을 꼽으려면 저는 아저씨를 꼽고 싶어요. 아저씨! 항상 건강하세요. 꼭 한 번 뵙고 싶습니다.’ ♥



보고 싶은 고모부

● 글_김희정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도 이별을 하게 돼 작은 엄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작은엄마네 집하고 고모네 집이 가깝게 있어서 작은엄마네 집과 고모네 집을 오가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부모님이 두 분이지만 전 작은아빠 · 작은엄마 · 고모 · 고모부 네 분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엄마 · 작은아빠도 너무너무 저희에게 잘해주셨지만, 고모와 고모부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친구처럼 또는 언니 · 오빠처럼 저에게 항상 신경써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엄마 · 작은아빠와 살던 학창시절은 지나가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에 뛰어들어 돈을 벌며, 오빠와 단둘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고모네 집이 우리 집인 것처럼 가서 밥 먹고, 자고, 우리 집보다 더 편했습니다.

고모네 집은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가면 무조건 떡볶이라도 해주면서 뭐든지 배부르게 먹으라며 우리 입을 채워 주셨고, 고기반찬이 아니어도 저희는 고모네 집에 가면 항상 배터지게 무언가를 먹고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모가 우리한테 물심양면으로 음식이며, 썰이며 퍼주고 있을 때, 고모부는 항상 옆에서 “여보, 그거 싸주면 애들이 일주일도 못 먹겠네. 그거 싸줄

바에야 그냥 싸주지 말아부러. 싸주려면 이 정도는 싸줘야지. 이게 뭐가?” 하면서 이것저것 더 싸도록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애들 다 싸주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고모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면 고모부는 옆에서 또 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돈 벌어주면 되지. 조카들 반찬 몇 개 못해 줄까봐 그러냐? 이번에 아버지가 보내준 쌀도 애들 가져가게 챙겨주고, 또 이번에 시골에서 보내준 미숫가루도 많던데, 딱 반 덜어서 애들 가져가게 줘” 하면서 저희들에게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안달이셨습니다. 고모는 고모부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한테 께속말을 하시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모부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어렸을 때 부모 여의고 둘이서 고생하면서 산다고 만날 너희한테 전화해보라고 하고, 어린 것이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회사 다닌다고 밥도 굶는데, 고모가 옆에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해.”

그렇게 고모랑 고모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반찬이며, 썰이며, 갖가지 김치며, 사시사철 챙겨주셨고, 자취생활을 했던 오빠와 저는 정말 고모와 고모부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돈 많이 벌어서 효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한 번씩 고모네 집에 가면 그동안 힘들었던 피로 때문에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잠만 폭 자고 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고모도 회사 다니느라 일주일 동안 고생했을 텐데도 저 편하게 자라고 애들 둘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놀이터 데리고 나갔다가 시장 둘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온갖 반찬을 해서 제가 집에 돌아올 때 한가득 싸주시기 바쁘십니다.

옆에서 고모부는 오랜만에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봐서인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아가들아, 고모할아버지가 뭐 사줄까?” 하면서 다가오지만, 우리 아이들은 ‘악’ 하며 도망가기 바쁩니다. 새까만 얼굴로 체적이 큰 사람이 다가오니 꽤나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뭐 해드릴 것이 없어 자주 찾아뵙지 못하다 한 번씩 가서 보면 고모부 얼굴이 자꾸 까매져 있습니다.

“고모부, 얼굴이 왜 자꾸 검어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나야, 뭐 만날 술 먹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나 건강하다” 하면 옆에서 고모는 고모부한테 눈을 흘기며 말씀하십니다.

“희정아! 니가 고모부 술 좀 먹지 말라고 얘기해라. 고모부 저녁마다 소주 한 병씩 드시고,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면 또 나가서 술 먹고 오고, 고모가 술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추석 전전날인 10월 2일에 시택에 가려고 옷가지며, 세면도구며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고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석이라 웬만하면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고모부가 중환자실에 계신다” 하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나?”고 울면서 묻자, 고모는 “고모부가 입원하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괜찮아져 퇴원까지 생각하고 있던 터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 중환자실로 내려왔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위독하시니 식구들을 부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고모에게 막 신경질을 냈습니다.

“이제 연락하면 어떻게 해? 고모, 정말 이러면 어떻게 해? 나, 고모부 병문안도 못 가본 거 아냐? 고모부가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고모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고모도 정말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요.

“건강해져 퇴원할 예정이어서 너희들에게 미안해서 연락 안 한 거야.”

고모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늘 우리 생각만 하는 고모가 그럴 때는 정말 너무 미웠습니다.

단숨에 신랑이랑 달려갔더니, 오빠네 식구도 모두 와있었습니다. 가자마자 중환자실로 가서 고모부를 뵈었는데, 가쁜 숨소리를 내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숨 쉬기가 힘드신지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계셨는데,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지 손으로 그걸 자꾸 빼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빼면 안 된다고 만류하자 그제야 빼는 것을 포기하고 저희들을 지긋이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는데, 아! 저희도 울고, 고모도 울고….

저는 쾌유하시기만을 하늘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저희를 알아보시고는, 그 후부터는 사람을 못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추석날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기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인지 제가 많이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도 많이 울고 힘들어하니까 친척 분들은 “꼭 아버지 돌아가신 사람처럼 운다”며 “기운 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고모 옆에서 고모를 지켜주시던 고모부. 저희에게 뭘 하나 더 주고 싶어서 늘 마음을 써주시던 고모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 오늘도 고모한테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집안정리도 해드리고, 시장도 같이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빚 고모한테 갚으며 살게요. 고모부가 저한테 주신 사랑, 고모한테 정성으로 갚을게요.

하늘나라에서 부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모부! 부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며 계세요. 고모는 저희가 옆에서 잘 지켜드리고 있을게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



벽에 핀 꽃

● 클_나진 |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골에서 두 분 부모님만 사신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식은 4명이나 되지만 세 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 1년에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가 그나마 가까이 산다고는 하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는 터라 주말이라고 시간내기가 쉽지 않으니, 자식이라고 해 봐야 가까운 남보다 더 못하지요.

가끔씩 들르는 옛 고향집은 날이 갈수록 어머니·아버지처럼 서서히 늙어 가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청소 한 번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에 쓸쓸하게 남아가는 고향집에 도배와 장판을 바꿔드렸습다. 지난해 설에 가보니 10년도 훨씬 지난 낡은 방바닥 한구석은 테이프로 막아 졌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저희 형제 방에는 시큼한 곰팡이 냄새가 풍겼거든요.

“어머니. 도배랑 장판 언제 하셨어요? 한 번 바꿔야겠네.”

“넵뒤라. 늙은이 사는 집이 다 그렇지 뭐.”

“에이. 그래도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요.”

“하긴. 가끔이지만 그들 와서 자는 방이 곰팡이 냄새가 나길래, 내가 도배를 할라고 했는데, 도배 값이 너무 비싸서 그냥 참자고 했다만 왜? 냄새가 심하냐?”

“아니요, 우리야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어머니랑 아버지는 날마다 생활하시는 방인데...”

“우리 때문이라면 괜찮다. 괜히 돈 쓸 거 없어야. 도배 값이 몇십만 원이나 하던디. 넵뒤.”

그런 어머니 말씀 때문에 저희는 추석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방마다 도배하고 장판도 바꿔드리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나름대로 세련돼 보이는 도배지와 장판을 구입하여 일찌 감치 고향집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도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동생과 저는 방에 있는 물건을 죄다 들어내 다른 방으로 옮긴 후, 기존의 도배지를 대충 벗겨내는 작업을 하였고, 아내와 제수씨는 도배지를 재단하고 풀을 바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도배지는 커다란 꽃무늬가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도배지를 보시더니 “남들이 보든 노망이라고 웃겠다” 하시면서도 “오메. 꽃이 참 곱구나. 이제는 꽃 보러 면데 갈 필요없겠네” 라면서 흥조를 띠셨습니다.

“어머니, 노인들일수록 밝고 화려한 색상이 좋대요. 집이 밝아야 어머니 기분도 좋아지죠.”

“너그들이 집을 가득 채우고 이리 바빠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기분 좋은 일이 있겠나미는 꽃밭이라 좋구나.”

어머니는 식혜와 수정과를 만드셔서 저희들 코앞에 내미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맛나지야?” 하면서 저희가 그 식혜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사이 아버지께서는 거치적거리는 손녀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시더니, 손에 낙지를 몇 마리 들고 오셨습니다.

“낙지 좀 묵고 해라. 이놈들이 힘이 어찌나 좋은지 금방 바다로 달려가겠다.”

서툰 일손을 놀리느라 고개와 어깨가 빠질 것 같던 저희들은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간식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어머니가 놓



사 지어 짜셨다는 참기름 속에서 낙지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바닷가 음식을 즐겨먹던 터라 이제 유치원생까지 산 낙지를 오물오물 씹으며 “맛있다”를 연발했습니다.

간식시간이 끝나고 다시 도배를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명절이라고 내려와 봤자 서로 동창회다 동문회다 들락거리다보면 몇 시간 얼굴 못 보고 지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처음 하는 도배라 비록 아침 7시에 시작해 방 3개 도배하고 장판 바꾸는데 장장 12시간이 걸렸지만 도배 하나했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정말 아늑하고 깔끔해지더군요.

아이들도 달라진 집이 신기한지 “와! 새집이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꽃

무늬 벽지가 있는 방에서 자겠다고 하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연신 “좋다야. 썩은 이가 빠진 것 같다” 하시는 것이 진작 도배를 하고 싶으셨어도 비용 때문에 참으셨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다시 차례상 준비를 해야 하는 아내에게 중노동을 시킨 것이 미안해 저희 형제는 “내일 전 부치는 것하고, 고기 굽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 손도 대지 말라”고 업포(?)를 놓아 양쪽에서 점수도 땀습니다.

항상 술과 고스톱에 찌들어 있다가 어영부영 명절 연휴를 끝내고 말았는데, 지난 추석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돌아오는 마음이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지금도 깨끗해진 방에서 흐뭇하게 주무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오면서 방금까지 빠근하던 아개의 고통이 기분 좋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



선산 5일장

● 글_김규태 | 경북 구미시 형곡동

그제는 2일과 7일 오일장이 서는 선산 장날입니다. 조금 무료하거나 지칠 때는 시골 장터를 찾아나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 열린 선산장 구경을 하기로 하고 아침 일찍 장터로 달렸습니다.

장터 입구에 주차를 하고 보니, 입구 오른쪽에 깔끔한 대형 마트가 오픈을 했다군요. 친절환 직원들의 서비스가 있고, 보기만 해도 싱싱한 야채들이 위생적으로 포장되어서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그러나 저울에 달아서 몇 원까지 인쇄되어 나오는 가격표보다는 손집작으로 대충 덜어주는 장터 사람들의 흙 묻은 손이 정감이 가고 밭에서 갓 뽑아온 야채의 싱싱함이 있는 장터와 그 사람 사는 냄새가 좋아서 장터로 발길을 돌립니다.

선산 장터에 들어서니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사람들이 모여 서너 명씩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시끌벅적했습니다.

고소한 고등어가 자글자글 기름을 내며 익어가고 멸치 육수가 먹음직한 가락국수가 팔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장꾼들의 아침을 해결하는 곳이지요. 어젯밤에 한 잔 하셨는지 한 아저씨는 콩나물 해장국과 소주병까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해장술을 한 잔 할 요량인 것 같습니다.

고등어 익어 가는 냄새가 나를 자꾸 잡아 당겼지만 나올 때 먹기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금 사과나무에서 툭 따온 듯한 사과를 한자 실은 소형 화물차가 있고, 이주머니는 비닐봉지에 사과를 담느라 바쁜 손을 움직입니다. 손으

로는 사과를 넣고 눈으로는 손님을 보면서 외칩니다.

“사과 사가이소. 달고 맛있는 꿀 사과 사가이소. 한 봉지에 오천 원입니다. 사과사가이소.”

조금 올라가니 리어카에 고등어를 가득 실은 아저씨도 외칩니다.

“고등어 사이소. 방금 바다에서 잡은 기라요. 팔딱팔딱한 고등어 사가이소. 굽어 먹어도 맛있고, 지져 먹으면 더 맛있는 고등어. 퍼뜩 사가이소. 단돈 천 원에 두 마리.”

리어카에는 바다 냄새 나는 고등어, 그리고 오징어상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저씨예, 고등어 이천 원 어치 주이소. 그라고 한 마리 쟁가 주이소.”

“그라마 안 되는데 예. 에이 기분이다. 아지매 이쁘니까 한 마리 쟁가 주지요.”

“예. 고맙습니다. 마니 파이소.”

우리 아내는 덤으로 얻은 고등어 한 마리에 행복해 합니다

모자만 가득 진열된 모자가게에는 별의별 모자가 다 있고, 좀 더 올라가니 발만 있는 마네키이 예쁜 양말을 신고 거꾸로서 있습니다. 날씬한 다리를 공중으로 하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아가씨 발 마네키도 있습니다. 500원짜리 발목 양말을 열 개 샀더니 스타킹 하나를 끼워 줍니다.

도넛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게 해서 찾아가니 동그란 도넛이 기름에 동동 떠서 몽실몽실 퍼져갑니다. 찹쌀 도넛 두 개, 방금 튀긴 도넛을 두 개씩 먹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빵집에서 먹던 도넛 맛이 났습니다. 도넛 5,000원어치는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석 어묵집 야채 어묵들이 초록색·오렌지색으로 올망졸망 제 나름대로 질서를 잡고 누워 있는 모습이 다채롭습니다. 대추만한 어묵을 시식했지요.

“아지매요. 마이 파이소. 수고 하이소.”



인사를 하고 지나가려니까 “하나 더 묵고 가이소” 하는 아지매의 얼굴에는 건강한 웃음이 넘칩니다.

이어서 오만가지 물건이 있는 잡화상입니다. 가위 · 고무줄 · 드라이버 · 집게 등등. 시골 가져갈 톱을 하나 샀습니다. 호미도 있고, 낫도 있고, 없는 것 빼

고는 다 있는 잡화상입니다.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 모자가게에 들러 밀짚모자를 두 개 샀습니다. 가을 추수를 하려면 아무래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내 것은 패션 밀짚모자라고 좀 세련된 것을 샀습니다.

둘이서 밀짚모자를 쓰고 장터를 돌았습니다. 알록달록 꽃들이 줄을 선 꽃가게 옆에는 웅기전이 있고 까만 웅기가 가을 햇살을 받아서 반들반들 윤이 납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

“콜라, 콜라! 만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 쌀 때 퍼뜩 가져 가이소. 그거 남는 거 없어요. 1,000원만 더 쓰시지. 땀이요 땀이. 막걸리 한 사발 사 먹게 땀이해 가이소.”

젊은 새댁들은 애교 섞인 흥정을 잘도 합니다.

“아저씨, 요고 하나만 쟁가주이소. 아저씨 너무 인심 좋게 보여요.”

털털한 아저씨는 기분 좋아서 “남는 것도 없는데. 예, 가져 가이소. 또 오이소” 라고 말합니다.

장사 본전도 안 되고 밑지고 판다는 거짓말,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 노인들 빨리 죽고 싶다는 거짓말. 우리나라 삼대 거짓말을 시골 장터에서는 수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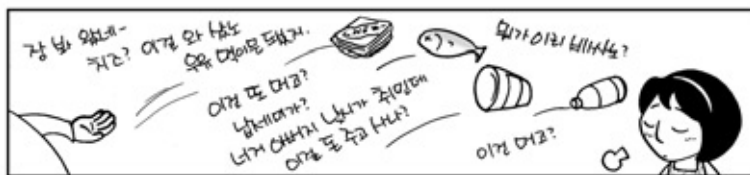
한 바퀴 돌고 나니 출출해서 아침에 봐뒀던 밥집으로 가서 콩나물해장국 한 그릇씩 하고 역시 덤으로 노릇노릇 구운 고등어까지 맛나게 먹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씩 아내랑 건배하고 나니 축 늘어졌던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른 시골 장에서, 상인들의 외침에서 살아갈 힘을 얻어 갑니다. 행복한 시골장터로 가을맞이 한번 나가 보세요. 잘 익은 김장용 고추도 살 겸 해서 한 바퀴 둘러보세요. 행복을 덤으로 얻습니다. ♥

나의 일일매트

◎그림 심경희

※ 이 만화는 애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매월 건. 계는 나고름 등나 주십니다.



안산시 어린이는 우리가 지킨다

안산시 단원구의 로보캡순찰대를 찾아서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양지초등학교 1학년

1반과 2반은 특별한 수업을 하였다. 바로 유괴방지를 위한 공부였고,

교사는 안산시 단원구의 로보캡대원들이다.

“여러분, 유괴가 뭔지 아세요?”

교사역할을 맡은 서른세 살 김혜진 대원이 묻자, 퐁퐁퐁
망한 1학년 친구가 대답한다.

“애들 잡아가는 거요!”

“나는 누가 제일 먼저 지킬 수 있죠?”

아니,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그런데도 아이들은 잘도 대
답한다.

“나요, 내가 제일 먼저 지킬 수 있어요!”

이어서 어린이들은, 유괴의 여러 유형과 성폭력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들에 대한 비디오를 보았다. 자동차
에 탄 낯선 사람이 어린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가까이 다가가는 비디오 속 어린이를 향해 아이들은 “안
돼, 멈춰!” 하고 소리를 지르는 현명함을 보여준다.

다음은 역할극시간. 이성부 대장님이 모르는 할아버지
가 되고, 이서연 대원과 박춘선 대원이 모르는 아저씨, 아줌
마가 되어 아이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하면, 어린이들은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연습했다.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를 크게 외치는 연습도 했다.



■ 로보캡순찰대는 이렇게 오전에는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찾아가 교육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지켜주는 순찰을 돈다.

로보캡순찰대는 이렇게 오전에는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찾아가 교육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지켜주는 순찰을 돈다. 오락실 근처나 학교 앞에서 방황하는 어린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하고 공원과 공공화장실,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다가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순찰하면서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도 늦추지 않는다. 로보캡 대원을 만나면 어린이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인사도 잘 한다.

단원구는 지역이 넓어 멀리 대부도에도 나가는데, 그곳에 있는 복지시설인 등지청소년의 집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순찰을 겸하여 이불을 빨고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한다. 또 지역에 큰 행사와 축제가 있을 때는 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미아를 찾아주는 지원사업도 한다.

안산시에만 있는 로보캡순찰대는 생기게 된 기습 이쁜 배경이 있다.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지만 2007년 12월에 안양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이혜진 어린이와 2학년인 우예슬 어린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 가지고 오는 도중에 놀이터에서 유괴됐다. 그 사건을 계기로 안산시에서는 아동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2008년 7월에 로보캡 순찰대를 만든 것이다.

로보캡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로봇이고, 대원들의 복장 역시 로보캡을 닮은 모자와 단복을 착용하고 붕과 호루라기,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들은 친근감과 든든함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지금은 상록구와 단원구에서 모두 300명의 대원이 넘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대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여성시대 가족인 박춘선 씨도 로보캡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어서 여성시대 앞으로 편지를 보내오셨다. 경기도미술관 안에 있는 순찰대 사무실에 들렀다.



봉사대원들은 여기 모여서 복장을 갖추고, 활동에 대한 회의도 한다. 매일 매일의 활동을 하면서 일지도 쓴다. 어느 코스를 순찰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특별한 일은 무엇이 있었고, 시민들의 제안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시민들은 로보캡 대원을 만나면 어느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어느 시간에 많이 몰려 있으니 순찰을 강화해 달라거나 어디에 가봐 달라는 제안을 수시로 한 다니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짐작이 된다.

윤명숙 간사가 관리하는 벽에는 순찰근무 요령이 크게 적혀 있었다.

- 복장은 단정히 하고 긴 머리는 망치리를 한다.
- 상하의와 모자, 벨트, 붕, 경적을 착용한다.
- 순찰시 잡담금지
(당당한 자세, 자신감 있는 말투, 시민과의 상냥한 인사하기)
- 순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판단 정확히 하기
(성추행, 아동폭력, 금품갈취 등)

- 의심되는 차량 집중 관리(차량보호, 인상착의, 사람복장 등 메모)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음주, 흡연, 불량식품 선도)

안산시에는 모두 5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단원구의 27개 초등학교를 이곳에서 맡고 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고 싶다. 더구나 우리의 아이들은 더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린이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지켜주는 로보캡 순찰대 활동은 그래서 이렇게 큰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박춘선 씨가 여성시대 앞으로 보낸 편지에 쓴 내용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을 놀이터로 내 보내기가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유괴도 많아졌고 불량 학생으로부터 피해도 많아서 엄마들은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무섭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로보캡 순찰대가 생긴 거지요. 힘은 없어도 복장 갖추고 방망이 옆에 차고 무전기 들고 학교 주변을 4시간 돌아보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학생들이 인사를 하고 주변 할머니들께서 고맙다고 하면 자부심이 커집니다. 봉사를 하면서 새삼 느끼는 점은 왜 이런 세상에서 애들을 키워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봉사가 없어지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친환경 제품, 친환경 성장 추구하는 녹색기업

기업은행 대구비산동지점 고객
(주)대원GSI 서용교 대표



주부라면 완전미와 청결미란 말에 익숙할 것이다. 완전미란 도정한 쌀로부터 찌리기 등을 제거한 쌀을 일컫는데, 보통 쌀에 비해 상품성이 훨씬 좋다. 청결미는 도정한 쌀에 묻은 쌀겨를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저장성이 좋으며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밥을 지을 수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완전미와 청결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이가 바로 (주)대원GSI의 서용교 대표다.

(주)대원GSI는 농산물가공기계 제조업체로, 쌀·보리·콩과 같은 농산물을 수확한 후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의 과정, 즉 건조·저장·가공·포장 등에 필요한 모든 기계를 아우른다. 국내 농산물가공기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타 공인 1등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기술력을 자랑하며 선전하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 선별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제품인 색채선별기(광학센서를 이용해 미곡 등 곡물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제품)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이미 선발업체인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쟁업체보다 한 발 앞선 품질과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온 (주)대원GSI는 지난 2006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테크사업에 뛰어든 것. 현재 (주)대원GSI는 곡물을 도정한 뒤 나오는 왕겨와 미강(쌀의 속껍질) 등의 부산물을 이용해 왕겨솥과 왕겨초액, 유기질비료, 화장품과 비누 등을 선보이고 있다. 올 초부터 '미토피아'라는 브랜드로 시판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과 왕겨초액은 대표적인 성과. 특히 기능성 화장품은 트러블·아토피·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앞서 대구한의대와 경희대에서 유독성실험과 동물실험을 마쳤고,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



기업은행 대구비산동지점 김수섭 지점장(왼쪽)은 "(주)대원GSI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라고 말한다.

으로 한 임상실험도 끝나 충분히 그 효능을 입증 받은 상태다.

“미토피아라는 이름이 아직 낯설 겁니다. 저희는 제품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광고를 통해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이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그 효능을 체험하고 입소문이 퍼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요.”

특히 왕겨초액의 경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왕겨초액은 보습력과 살균효과가 뛰어난 천연물질로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 벌레 물린 데나 무좀 등에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양치할 때 칫솔에 살짝 묻혀 사용하면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 비데 사용 시 왕겨초액을



(주)대원GSI는 농산물가공기계 제조업체로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약간 넣어주면 탁월한 살균효과와 세척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세탁 시에는 정전기 방지할 수 있다. 머리에 뿌리면 비듬 및 두피 가려움증에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모발을 만들어준다니 그야말로 가정상비용으로 손색이 없다.

(주)대원GSI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을 추구해왔다. 이런 남다른 발상과 경쟁력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주)대원GSI의 차별화된 특징은 사훈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좋은 회사를 만들자’라는 경영방침은 국가와

인간을 좋게 하는 회사, 거래처를 좋게 하는 회사, 직원을 좋게 하는 회사로 구체화된다. 서 대표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품 개발 하나에도 남다른 소명감을 부여한다고 강조한다.

“색채선별기도 애초에 돈을 벌려고 개발에 착수한 게 아닙니다. 90년대까지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던 제품이었는데, 이를 국산화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여 소명감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왕겨초액과 같은 친환경제품을 개발하고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겠지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쌀 기계를 만지지 않았고, 왕겨를 취급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겠지요.”



(주)대원GSI 직원들은 소비자들에게 ‘약이 되는 쌀’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남다른 소명감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좋지 않을 리가 있겠냐고 그는 반문한다.

“저희가 만든 제품을 비슷한 모양으로 흉내 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이나 정신, 가치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 비슷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반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품의 태생이 다르고 그것이 온전히 담고 있는 정신이 다르기에 단순한 품질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대원GSI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지 뿌리다. 기업은행 대구비산동지점 김수섭 지점장은 “서 대표께서 솔선수범하여 직원들과 인화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다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라며 장밋 미래를 점쳤다.

오랫동안 농산물가공기계와 인연을 맺은 까닭에 서용교 대표의 우리 쌀에 대한 애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늘리려면, 저희가 어떻게 쌀을 잘 가공하고 만드느냐도 중요하겠지요. 쌀은 밀가루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영양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현미나 완전현미처럼 영양성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과 약이 되는 쌀을 꾸준히 공급하고 싶습니다.”

먹어서 낫지 못하는 병은 약이 없다는 말이 있다. 먹을거리를 통해서 병을 얻을 수도, 고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소비자들에게 ‘약이 되는 쌀’을 공급하고, 밀가루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입맛을 쌀로 바꾸는데 적극 앞장서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여전히 울컥다. ♥

● 글_오인숙(자유기고가) | 사진_김영광

그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서용교 대표의 성공 노하우

- ✦ **형그리정신** : 운동선수들이 배고프고 힘들 때 더 악을 쓰고 운동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형그리정신을 가져야 한다. 시작 단계에서 이런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모자람을 끊임 없이 충족시켜주는 형그리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찾아라.
- ✦ **의무감** : 사람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의무를 갖는다. 국민으로서, 남자로서, 자식으로서, 한 기업의 대표로서 갖는 의무가 있다.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 ✦ **운** : 모든 것에는 운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 운은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조차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찾아온 운을 놓치지 않고 쟁취하기 위해서는 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소액예금**도 우대받는

서민심김통장

단 1만원을 넣어도
최고 연
5.0~5.6%
1년제 3년제

(‘09. 10. 30일 현재, 예금식 기준)

가입금액

동일인당 적금식·예금식 각각 3천만원까지
(적용금리는 계좌별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차등)

사은품 제공

기업은행 최초실명등록 고객이 1천만원 이상 가입시 (‘09. 11월 말 까지)



국 내 최 초 굴 액 기 스 건 강 기 능 식 품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오·이젠(Oy-Zn)'

(주)그린바이오사이언스는 바다의 굴(Oyster)을 효소 분해하여 만든 오·이젠(Oy-Zn)을 시판하고 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며 인류가 유사 이래로 선호해온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굴에는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 A·B1·B2·B12



다. 이 군대가 이들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면역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 몸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외부 침입자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면역요법이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아연(Zinc)과 마그네슘(Mg)이다.

2006년 발행된 미

국 과학잡지 <Nature>는 "아연(Zinc)이 면역 세포에 정보 전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면역 계의 사령탑인 수상 세포(樹狀細胞: Dendritic Cell)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증대시킨다"고 발표했다.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생활 습관으로는 과도한 운동이나 흡연과 음주 등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단당류 식품(쌀밥·빵 등)보다는 다당류 식품(잡곡)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아연·마그네슘·칼슘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서울 강남 차병원의 차범희 교수는 지난 10월 10일 방송된 MBC <경제매거진 M>에서 "면역력 증대에는 홍삼·황기·비타민 B·비타민 C·마그네슘·아연 등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몸속에는 외부로부터 침입하여 들어온 세균·바이러스·인플루엔자(신종 플루) 등의 이물질을 공격하는 군대(면역체계)가 있

● 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거래 고객

● (주)그린바이오사이언스

문의 : 031-709-8271 / www.oyzn.co.kr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촉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가족사랑수기 공모 당선작 I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여성시대에서는 가족사랑 아이스크림 투게더와 함께 가족사랑수기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를 공모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가족사랑수기를 써서 뽑으신 가족상 한 팀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황금가족여행권을 드리고 7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족여행권까지 모두 4,0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졌습니다. 당선작을 소개합니다.

● 가족상

거북아, 사랑한다
김혜경 님

● 사랑상

아들의 홀로서기
김옥경 님





거북아, 사랑한다

● 글_김혜경 | 경기도 부천시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버렸어!”

학교에서 돌아온 5학년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를 버리다니!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아이의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곱 가지 보물을 배에 싣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 살기 위해서 한 가지씩 버리는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보물은 게임기 · mp3플레이어 · 친구 · 부모님 · 나 · 동생 · 가수 2pm이었다고 합니다. 게임기 · mp3플레이어 · 2pm 순으로 버리고, 그 다음은 친구를 버리고 나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마지막에 부모님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딸은 부모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동생을 살렸다고 해서 엄마 · 아빠께 너무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차마 바다에 버릴 수가 없었다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벅차올라 딸아이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작은아이는 발달장애라는 마음에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돌이 지나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 있다가도 거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뛰어나와 들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마다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

하면 두 시간을 울었습니다. 달래도 보고, 우유도 먹여보고, 별짓을 다해도 어디가 이쁜 아이처럼 앙그러지게 울다가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여쭙어 보니 대수롭지 않게 잠투정이라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밤의 전쟁! 정말이지 잠 한번 푸욱 자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밤에만 울던 아이가 두 돌이 될 무렵부터는 무언가 기분이 나빠지면 악을 쓰며 지쳐 잠이 들 때까지 울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손을 잡아끌고 가서 달라고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항상 혼자 놀면서 장난감 자동차 바퀴 같은 등근 물건을 돌리면서 그것만 한참을 바라보고 놀았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아니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아이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25개월 무렵, 동네 대학병원 신경정신과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신경정신과를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잠시!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외적으로 아이가 정상이고 하니 36개월 전에는 진단하지 않는다.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늦은 아이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것ेल요, 그래서 동네 개인 신경정신과로 갔습니다. “36개월 전에 진단이 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으나 분명히 다른 아이와는 좀 다르니 도와달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의사선생님은 “아이에게 ‘유사자폐성향’ 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자폐라니요? 우리 아이가요?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내가 무얼 잘못했나? 아님 임신중에 무얼 잘못 먹었나? 내가 남에게 몹쓸 짓이라도 했나?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울어도 울어도 눈물이 멈추어지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제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무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제 잘못으로 아이

가 마음에 병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 아빠는 저에게 소주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했습니다.

“울지 마. 당신은 엄마잖아. 울고 싶을 땐 나하고 둘이 있을 때만 울어. 엄마가 울면 아이들이 더 슬퍼하잖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제가 여자가 아닌 엄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엄마들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놀이치료와 언어치료를 하러 신경정신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신경정신과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노발대발하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 우리 아가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에 다니느냐? 에이 네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하고요.

사골본인데다 옛날 어른들은 아직도 신경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곤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만큼 아프세요? 저만큼 힘드세요? 어린 아이에 손을 잡고 신경정신과에 가야 하는 제 마음은 어떤지 어머님은 아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어머니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마찰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커 갈수록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의 특성이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스웨터를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그 옷을 입고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외출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매일 신던 신발이 더러워져 빨고 나서 다른 신발을 주었더니 물이 뚝 뚝 떨어지는 그 신발을 신고 나가겠다고 신발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럼 또 그날의 외출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화가 나서 엉엉 울기를 두 시간. 게다가 다섯 살이 되도록 말 한마디 못 하고 ‘응가’도 가리지 못하고 바지에 그냥 싸 버렸

습니다. 언어에 도움이 될까 하고 아이가 듣든 안 듣든 큰소리로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찾을 때면 저 혼자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 우유, 우유 달라고? 우유주세요 하는 거야. 우유, 우유” 하고 똑같은 단어를 수십, 수백 번 해주었습니다. 응가를 가려주기 위해서 변기 앞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바지에 응가를 하면 엉덩이를 때리기도 해보고 별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작은아이가 또 울었습니다. ‘또 왜 화가 나서 우는 것일까? 또 두 시간은 울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아이가 “아이스크림” 하는 게 아닙니까.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니, 다시 아이는 “아이스크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주었더니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이에 말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그때 그 감동이란 어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때부터인가 봅니다. 아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발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아이 아빠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는 거북이와 같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정상을 향해 갈 거라고.”

그렇게 아이가 조금씩 발전해 갔습니다. 조금 더 많은 자극을 주어 보고자 작은아이가 일곱 살 무렵, 집 앞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애아 친구들과의 교육과는 다른 비장애아 친구들과에 통합교육이 필요했으니까요. 한 달 여쯤 다녔을까요, 처음에 잘 가던 유치원 앞에만 가면 아이가 안 들어가려고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와서도 문득 문득 놀다가 저에게 안겨 울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흐느끼면서요.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의 울음이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유치원에서 몇몇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는 저희 아이를 따라



다니며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에게 정말 크나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선생님들도 너무 미웠습니다. 유치원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내년이면 여덟 살,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는 또 어찌 보내야 하나? 일반학교를 갈수는 있을까? 특수학교를 보내야 하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때리면 어쩌지? 왕따를 당하면 어쩌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앓혀놓고 한 대 때리고는 “때리지 마, 선생님께 이를 거야” 하라고 연습도 시켜보았습니다. 이때 이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고민 끝에, 그리고 같은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조언을 들으며 일반 초등학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집 근처에도 초등학교는 있지만 집에서 약 30분 정도 거리에 통합반이 잘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를 결정할 당시 아이 아빠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등교는 자기가 직접 해주겠다고요. 힘든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학교생활! 걱정과는 다르게 학교 가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주머니를 들고 교문을 들어서는 아이에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년입니다. 아빠는 3년 동안 아이 학교 등교시켜 준다는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사랑과 정성이라는 약의 효험으로 미약하지만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아주 간단하지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를 “으음음”이 아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던 그 말 “엄마 엄마” 소리를 듣는데 9년이라는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우리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한발 한발 더 나아갈 겁니다. ♥

| 가족사랑수기 공모 당선작 | 사랑상



아들의 홀로서기

● 글_김옥경 | 경북 성주군

사랑하는 아들 수근아!
기숙사 생활은 잘하고 있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혹여 감기 걸릴까 걱정이구나!

단감이 주렁주렁 알차게 달린 감나무를 보며 ‘너도 단감처럼 좀 더 단단하게 영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엄마는 아직도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벌렁거린다. 어쩔 올해는 네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간들일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들을 앞으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밑거름으로 활용한다면 너의 인생은 반드시 빛이 나리라고 엄마는 믿고 있었다.

입에 담기조차 끔찍했던 지난날을 다시 회상하는 것은 네가 예전의 너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표현을 아꼈는데, 이제는 말을 해도 될 만큼 너는 많이 성숙했지.

너무 밝고 명랑했던 네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한 후부터 어딘가 모르게 집에 오면 식사도 잘 못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고 혼자 방에서 우울하게 지내다 학교로 가곤 했었지?

그동안 엄마는 너를 통해서 학교생활을 다 알 수가 있었는데 예전과 달라진 너를 보며 그저 사춘기려니 하면서 ‘너에게 좀 더 사랑을 줘야겠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던 날 숨이 멎는 줄 알

있었다.

“어머니, 수근이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한마디뿐.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집에 온 너는 대답이 없고, 다른 학부형들도 엄마와 똑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엄마의 속은 새까맣게 탔었다.

길고 긴 시간. 이들을 기다려 회의에 참석한 엄마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1학년 120명 중 8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5명의 가해 학생들에 의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을 폭행하고, 온갖 금품을 갈취하고, 심부름(일명 뺑돌이)을 다 시키면서 부모나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게 협박까지 했다니 말이다. 무늬만 학생이지 사회의 조직 폭력배나 다름이 없는 무서운 학생들을 두고 학부형들은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엄마가 더욱 놀란 것은 그 피해 학생들 중에서 네가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엄마는 너의 행동들이 사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지 너는 모를 거야! 석 달 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전전공공’ 했을까! 엄마는 눈물이 났다.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좋으련만...

‘퇴학을 시키자! 전학을 시키자! 경찰에 넘기자!’ 목소리 높여 말들도 많았던 학부형들의 모임 횃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모이는 인원이 줄었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학부형이 5명으로 압축되었을 때, 엄마는 정말로 서글펐다.

가해학생들이 했던 행동들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서도 계속 이어졌던 일인데, 단지 의무 교육이란 이름아래 어떤 처벌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더욱 과감하고 조직적으로 뭉쳐서 못된 짓을 한 게 아니었나 싶었다.

가해자들은 피해학생들의 집을 찾아 부모들에게 사죄하며 합의서를 받으러 다녔고, 우리 집에도 밤낮 주야로 전화하고 찾아와 곤욕스러웠다.

또다시 부모들까지 2차적으로 가해학부모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는 전혀 몰랐지?

그러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너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엄마의 마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우울·불안·초조’로 인한 8주 진단을 받았지만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숨이 막혔다.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는 몇날 며칠을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지?

그 사실을 알고 너는 “부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제 고통을 알기나 하세요? 눈만 뜨면 그 애들한테 불려가서 잠들 때까지 온갖 심부름과 금품 빼앗기고 폭행까지, 아이들 앞에서 망신 당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제 마음을 아세요?” 했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부모를 원망하는 너에게 엄마와 아버지는 너무나 미안했고, 놀라서 그저 막막하기만 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몰라도 엄마는 너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너는 석 달가량 고통을 받고 사건이 밝혀져 부모들이 알게 되어 보호막이 생겼지만, 엄마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전학와서 졸업할 때까지 일명 ‘흑장미파’에 의해 폭행부터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다 겪었다. 그러나 일찍 혼자되어서 6남매 키우는 할머니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전디다 못해 엄마는 ‘흑장미파’ 때문에 자살한다는 유언장까지 썼었다. 그리고 학교 4층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수십 번 했었지! 그러나 그때마다 엄마를 살게 해준 사람이 바로 할머니와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 미경이 아줌마야! 나는 “그 애들로 인해 너의 인생이 희생되면 누가 손해니? 죽는 자만 억울하고 산 자는 당장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세월 지나면 망각하게 되어 있어?”라며 회유하는 친구와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밤 12시까지 일하시며 열심히 사는 할머니 때문에 살 수 있었어.

엄마는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를 생각하거나 학교에서의 폭행 장면을 TV로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린단다. 학교를 졸업하고 2년 후에 우연히 길에서 ‘흑장미파’를 만났는데, 가슴이 두근거리 초침이 흐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가슴에 새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도 잊히지도 않는 것이라네. 그러나 세월 속에서 홀로서는 강인함과 방어력은 생기게 되더구나! 차돌처럼 단단하게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친구가 참 고맙지!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었다면 너처럼 듩직한 아들을 얻을 수 있었겠니? 엄마는 너의 상처와 아픔을 백 번 이해하고도 남는단다. 아들이!

너의 말대로 너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옛말에 ‘자식 가진 부모 막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세상사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지만 자식만큼은 절대로 부모 마음대로 뜻대로 될 수 없다는 말이야.

가해 부모와 학생이 찾아와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선처를 바랍니다’ 하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했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자식 키우는 같은 부모로서 차마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더구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와 의논하지 않고 합의를 해준 거란다. 너와 의논했더라면 네 말대로 너는 안 된다고 했을 테니까 말이다.

네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엄마가 적극적으로 너의 편을 들지 않은 게 너는 서운하다고 했지만 엄마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단다.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도 엄마는 너에게 강한 아이가 되도록 많은 말을 했었지?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너를 좀 더 강한 아들로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하는데 네가 엄마를 의지해서 홀로서기를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마음껏 엄마의 진심을 보이지 못했단다. 그게 엄마의 교육 철학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니?

몇 달간의 정신과 치료와 SOS 청소년 폭력 방지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상담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조금씩 너의 모습을 찾는 것을 보고 엄마는 너무나 기뻐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너와 상담을 한 후에 꼭 엄마한테 전화를 주셨고, 엄마는 너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수시로 담임선생님과 통화해서 너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묻고 확인하고 있단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학교에 그대로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니?

더욱 더 너를 지켜보고 있고, 학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니 너는 이제 걱정 말고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학업에 전념하고 좋은 교우관계를 유지했으면 한단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넓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주변 사람이 행복하고 너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아픈 상처를 잊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저 그런 삶도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네 인생의 디딤돌을 차근차근 만드는 성숙한 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줄인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알고 있지?

사랑하는 아들, 파이팅! ♥



딸의 외출

지난달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나와 봤더니 어진이 혼자 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기로 약속한 친구들이 둘 다 안 나왔어요.”

“그래? 왜 친구들이 안 나왔대?”

“그러게요, 어진이가 울기 직전이에요. 많이 기대했는데… 일단 30분만 더 기다려 보고요.”

“전화를 해보지 그래요.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냥 딸하고 이야기나 하면서 기다려 보지요.”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은 2주 전부터 같은 반 친구 두 명이랑 국립중앙박물관에 간다며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혹은 친구들과 어디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를 갈 때는 늘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좀 불안하기는 했지만 댜에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허락을 했습니다. 딸은 처음으로 가족과의 외출이 아닌 친구들과의 외출이라 그런지 2주 내내 기분이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30분 후, 아내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애들이 안 왔네요. 어진이는 속상해 울먹거리고요. 집에 가서 명종이 데리고 영화나 보러 갈래요.”

“어진이가 많이 실망했겠네. 잘 다독여줘요.”

아내는 아이들을 집 근처 영화관에 데리고 가 만화영화를 보여줬습니다. 현대 영화 한 편을 다 봤는데도 일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이 슬그머니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왕 간 거 영화 한 편 더 보여줘요.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그래도 돼요?”

“영화 한 편 더 보는 시간과 나 일 끝나는 시간이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요. 끝나고 중간에 만나 저녁이나 같이 먹지 뭐.”

그날 저녁, 결국 가족과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이라고 해봐야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게 전부였지만 딸은 영화 두 편에 기분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난 토요일,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진이가 같은 반 친구와 국립민속박물관에 가고 싶대네요.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주면 되지.”

“그래도 둘이 간다는데 걱정이 돼서…”

“국립민속박물관이면 집에서 가까운데 보내줘요, 다 경험이니깐. 지난 번 국립중앙박물관에 못 간 것도 있잖아요.”

“일이 몇 시에 끝나요? 당신이 일 끝나고 국립민속박물관에 둘러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요?”

“너무 간섭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알았어요. 생각해볼게요.”

오후 3시쯤, 일을 마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둘러 딸과 딸의 친구를 데리고 광화문광장에서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와 광화문광장에서 만나기로 먼저 약속을 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어디예요?”

“아버지, 경복궁역이에요. 방금 표 끊고 들어왔어요.”





“그래? 같이 광화문광장에 갈까 했는데...”

그때 딸이 친구에게 자기는 아버지가 데리러 온다면 혼자 집에 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딸에게 친구랑 같이 전철을 타고 집 근처 전철역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분 후, 집 근처 전철역에 도착하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역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딸이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가서 좋았어요. 좀 빨리 오느라 많이 보지 못해 아쉬워요.”

“친구와 많이 친해졌겠네.”

“네.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집 가까이에 이르러 지난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기로 하고선 나오지 않은 친구들 이야기를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때 중앙박물관에 간다고 했다가 안 나온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요?”

“말 안 해봤어요.”

“왜요? 그때 왜 안 나온 건지 물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니가요? 약속을 하고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애들과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 중 한 친구가 약속을 해 놓고 자꾸 잊어버리거나 다른 약속을 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속상한 건 그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린 것보다는 그 뒤로 아무런 이유나 사과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저는 학교에서 보면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딸의 눈빛이 금방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커가면서 겪는 과정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첫 외출을 시도한 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 김경수 씨는 초등학교 2, 4학년에 다니는 남매를 둔 아버지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 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시인이다. 시집으로 《서랍 속의 사랑》이 있으며, 책 만드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조금은 넓은 아버지다.

“승국이 입장이 되어 보게나”

“형님하고 바둑 둔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바둑통에 거미줄 쳤겠네.”

바둑 한 수 하자는 후배의 집에 들어섰더니 여기저기 장난감 천지였다. 모형 자동차 · 로봇 · 총 · 기차 · 롤러코스터는 물론이고 다트 놀이기구 · 레고블록 · 플라스틱 딱지 등 형형색색의 장난감이 거실에 가득하다. 후배는 베란다에 있는 쪽으로 그것들을 밀치면서 말했다.

“아들놈 장난감 때문에 으휴.”

장난감이 치워진 자리에 바둑판을 놓고 대국을 시작했을 때, 놀이터에 나갔던 여섯 살짜리 아들 승국이가 돌아왔다.

“아빠, 뭐해?”

“응, 아저씨하고 바둑 두니까, 너는 안방에 가서 놀아.”

“싫어, 나도 할래.”

“안 돼. 암전히 있어.”

쪼그리고 앉은 승국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둑판을 들여다본다. 바둑이 몇 수 진행되는 동안 승국이는 바둑통에 담긴 바둑알을 만지작거렸다. 아빠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아들을 제지했다.

“하지 마.”

슬며시 손을 땀 승국이. 일 분도 채 안 돼서 또 다시 바둑알을 만지작댄다. 아빠가 눈에 힘을 주고 낮은 톤으로 말했다.

“하지 말랬지.”

뽀루룩해진 승국이가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앉은걸음으로 물러났다.

“형님 두실 차례 맞죠?”

“응.”

포석 단계는 끝났고, 중반전 수읽기에 골몰하는 중이었다.
 애애앵~ 애애앵~ 애앵~ 애앵~
 갑자기 울리는 사이렌 소리. 승국이 장난감 앰불런스를 움직여 내는 소리였다.

“아! 한승국!”

아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승국이 손목을 잡아끌었다.

“너, 일루워!”

철썩! 철썩! 미처 말할 새도 없이 아빠의 매운 손바닥이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다.

“아, 이보게... 저런! 저런!”

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흑흑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 인마! 너 아빠가 버르고 벌렸어. 버르장머리없이 굴지 말랬지.”

저녁 술자리에서였다.

“자네, 승국에게 잘못하고 있네.”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때려서라도 교육해야죠. 오냐 오냐 키울 수는 없어요.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없는 거 부모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혼날 짓을 하면 혼내야 마땅한 거 아니요?”

“게으른 건 자넬세.”

“네?”

“승국이 입장이 되어 보게나.”

거실은 평소 승국의 놀이공간이다. 오늘 아빠와 낯선 아저씨가 그 공간을 점령해 버렸다. 승국이 장난감들을 쓰레기 취급을 당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다. 아빠는 그에 대해 한 마디 양해의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지 말라’는 명령만 되풀이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바둑돌을 만졌을 때에도 왜 안 되는 것인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행동을 제지하기만 했다. 심심해진 승국이는 제 장난감을 가지고 논 것뿐인데, 일방통행의 단순 명령을 반복하던 아빠가 급기야 돌발적인 폭력까지 행사한 것이다.

“어린이에게 어른 수준의 에티켓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야. 승국의 행동을 제지하기 전에 좀 더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어야 하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만큼, 친절한 설명과 따뜻한 대화를 위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의 대화에 인색했던 게 아닌가?”



승국이 아빠는 머리를 굽적이며 말했다.

“손님이 왔을 때 시끄럽게 굴면 못쓴다고 몇 번 주의를 준 적은 있어요.”

“손님? 여섯 살 아이가 손님? 범주를 알고 있을 것 같은가? 엄마·아빠를 제외한 사람인가, 아니면 친척도 포함되는 것인가?”

어린이들은 야구공·농구공·축구공을 한데 묶어 공이라는 꾸러미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의 친절한 설명과 애정 어린 대화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정서적·지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성과 도덕성을 발달시킨다. 반면 부모로부터 일관성 없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당하면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잃고 죄책감을 갖게 된다. 이런 아이가 장차 성취목표가 뚜렷한 자아정체감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어린 자녀에게 예측불허의 폭력을 자주 행사하면 ‘엄마·아빠가 때리면 내가 잘못된 것이고, 엄마·아빠가 안 때리면 잘못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도식적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다. 자녀가 체벌 의존적인 사고방식과 왜곡된 도덕관을 갖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부모는 지금보다 훨씬 친절해져야 한다. ♥

● **신규진 씨**는 ‘자기 존중감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하는 서울 경성고등학교 과학·상담 교사로, 상담 경험을 《기난하다고 실망하는 아이는 없다》 등의 책으로 엮었다.

팔불출이 박 총무의 멘토링



얼마 전에 ‘팔자걸음’이라는 이름의 모임에 가입했다. 요즘 유행하는 걷기 동아리의 하나인데, 그 목적인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속도에 치이는 현대사회에서 자기 성찰을 나누자는 데에도 있었다. ‘팔자걸음’이라는 이름 또한 느릿느릿 여유있게 걷자는 뜻과 동시에 자신의 팔자를 자기가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지어진 것이라 했다.

그 모임에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총무는 아주 특이했다. 가을을 맞아 특별한 팔자걸음을 걸어보자는 안건을 논의하면서 날짜를 맞춰보고 있을 때였다.

“아, 그날은 안 됩니다.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력상 평일이었다. 의아해하는 사람들 앞에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네, 제 처의 생일입니다.”

와하하 웃음이 터졌다.

“제가 그날 아이들과 아침상과 저녁상을 다 차려서 대령해야 하기 때

문에 절대 안 됩니다.”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모임에서 아주 이름난 애처가였다. 모두들 그 날을 포기했다.

나를 팔자걸음 모임에 소개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나 정말, 우리 박 총무 때문에 죽겠습니다. 좀 전에 전화해서는 또 제 마누라 자랑부터 늘어놓으려는 것을 간신히 가로막고 본론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모임은 말일로 정해졌습니다.”

“박 총무에게 아예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른 말은 못 쓸 거 아니겠어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친구, 편지에 쓰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마누라어천가’를 쓰고도 남습니다.”

한번은 그 집에 모여서 그동안 걸었던 과정들을 찍어 편집한 비디오를 봤다고 한다. 해설사처럼 장면마다 이런 저런 설명을 하던 박 총무가 갑자기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하더라. 영문을 모른 채 일어난 사람



들에게 “예를 갖추어 주십시오” 하더니, 자기가 먼저 경례를 붙여서 다들 열렬결에 따라했다. 다음 장면에 그의 아내가 등장했다.

나는 박 총무가 궁금해졌다. 익살을 부리느라 애처가를 과장하는 게 아닌 가 싶기도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부터 했다.

“우리 아버지가요, 며느리들을 무척 존중하십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애깁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다 지어주셨는데, 며느리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돌림자를 붙여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아들 두 명 이름을 합치면 제 아내 이름입니다. 우리 형님댁도 그렇고요.”

박 총무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아내를 존경하라”고 가르쳤다. 아내를 존경해야 아이들도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래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그 집에는 고부갈등도 없었다. 실제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의 장점을 자식들 앞에서 드러내고 감사하기 때문에 박 총무 형제들도 어머니를 존경하고 며느리들 또한 시어머니를 존경하니 어머니께서 며느리들에게 권위를 세우기 위해 굳이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박 총무는 분석했다.

박 총무가 당당한 팔불출이가 될 수 있는 데에는 어른들의 이런 모범과 훈

계가 초석이 되고 있었다. 부부 사이는 당사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탁월한 조연이 드라마를 빛내듯이,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사람의 감정에서 출발한 결혼은 사람의 감정이 변하기 쉬운 만큼 그 토대가 불안정해 지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가 족제도의 특징으로 남자 쪽 부모가 부부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들 가진 부모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문화센터에서 나에게 여성학을 배운 연상의 제자 중에도 훌륭한 시어머니가 있다. 그는 아들 결혼식 날 폐백을 받으면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로서 내 아들의 소유

권을 며느리인 너에게 이전한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를 원망 말고 네가 고쳐가면서 살아라. 아들은 네가 선택한 결혼이니 아내의 단점을 부모에게 말하지 말고 네가 설득하여야 한다.”

시어머니가 이러하니 며느리도 시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집에 오면 시부모는 늘 “인생에서 의지할 것은 부부밖에 없다. 부모는 죽으면 그만이고 자식은 떠나면 그만이니 서로 젊어서부터 잘해주라”고 말해준다.

부부에게도 멘토가 필요하다. ‘1대1’ 둘만의 팽팽한 긴장을 풀어서 ‘1+1=1’을 만들어내자면 부부살이의 경험을 가진 선배들의 조언이 수시로 필요하다. 박 총무는 “팔자모임은 팔불출이를 자랑하는 모임의 준말이기도 하다”며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말했다.

“저를 본 남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몰라서, 눈치가 보여서, 이게 맞는 건지 자신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저를 놀려도 얼마나 많이들 상담해 오는지 몰라요. 부부생활에도 멘토링·벤치마킹 다 필요합니다.” ♥

● 오숙희 씨는 개인 상담소 ‘해심터’를 운영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등 대중적인 여성학자로 활동 중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 어떤 만남이 더 성숙한 결혼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영양만점의 숨은 여행지

경북 영양 산책



영양만점 ‘영양’. 경상북도 영양은 숨은 보석처럼 파헤칠수록 찬란한 빛이 작렬하는 곳이다. 깨끗한 자연과 소박한 우리 농촌의 인심이 살아 있다. 이곳은 안동시·봉화군·영덕군과 접하고 있고 31번 국도가 남북을 잇는다. 이 국도를 따라서 여행해보자. 색다른 재미다. 로드 무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툭툭 국도를 따라 달리면 차창 밖으로 누런 들녘이 손짓하고 어느새 낭만과 시인이 된다. 아직 사람의 손때를 타지 않은 숲길과 우리 한옥의 정겨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차로 봉화군에서 넘어가면 ‘문향의 고장’이라는 커다란 팻말이 처음 보인다. 박사나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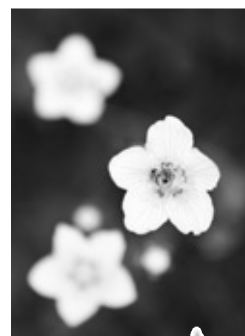
설레는 첫 번째 만남은 ‘대티골 숲길’이다. ‘대티골 숲길’은 영양군 일월면 용화 2리, 일원산(1,218미터) 산자락에 소담스럽게 펼쳐진 숲이다. ‘생명의 숲’이 주최한 제10회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숲길’에 입상한 곳이기도 하다.

일원산은 재미있는 산이다. 수달·담비·샬·깽깽이풀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기가 강하다는 속설 때문에 전국의 무속인들도 자주 찾는다. 무속인들은 그믐날 이곳에서 내림굿을 하면 점괘가 신통해진다고 말한다. 그 자락에 사람들의 손길이 자주 닿지 않은 청명한 숲이 있다. 대티란 말은 원래 옛날 봉화로 넘어가던 큰 고개라는 뜻이다. 이제는 8킬로미터의 숲길을 말한다(옛 국도 5킬로미터, 산판길 2킬로미터, 마을길 1킬로미터).

숲의 들머리는 신기하다. 오랫동안 쌓인 잎들 때문에 길이 폭신폭신해서 신발을 벗고 걸어도 마치 우리 집 안방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편하다.

롤루랄라 걷다보면 물소리·새소리가 친구가 되고 길마다 깔린 낙엽과 도토리들이 연인이 된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물매화 같은 꽃들도 꼭꼭 숨어있어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마을 사람들이 만든 그네도 눈에 띈다. 잠시 춘향이와 이몽룡이 되어 연애질 한번 ‘세계’ 해본다. 둘러보는 데 걸리는 약 2시간이 후딱 지난다.

갑자기 소나기라도 폭 왔다 가면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광선 겹 같은 빛이 땅에 쏙힌다. 서터를 누르는 아이추어 사진가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이쉬운 발걸음을 떼고 다시 31번 국도를





호은종택

따라 길을 나서면 ‘영양향교’를 만난다.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다. 버선코 모양의 기와들이 반갑게 맞는다. 향교 옆에 있는 우아한 수월헌(수월공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만든 정자)과 시골 동네 예쁜 교회당이 애잔한 기분에 젖게 한다.

이어지는 여행지는 ‘주실마을과 조지훈 생가’다. 31번 국도에서 살짝 10여 분 서쪽으로 더 가면 나온다. 도로변에는 코스모스가 춤추는 무희처럼 하늘거린다. 아! 가을이다!

마을 전체가 마치 박물관처럼 느껴진다. 호은종택·옥천종택·침정전·만곡정사 등 낮은 듯 높은 한옥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솟아 있다. 호은종택은 시인 조지훈 선생과 그의 형 조세립 씨가 태어난 집이다. 한국전쟁 때 일부 소실되었지만 1963년에 복원되었다.

호은종택 대문을 등지고 앞을 보면 여러 봉우리 중에서 유독 뽕족한 봉우리



가 보인다. 마을사람들은 이 봉우리를 ‘문필봉’이라고 부른다. 마을에서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된 이유를 이 봉우리에서 찾는다. 글씨 쓰는 붓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지훈 선생이 어린 시절 한문을 배웠던 월록서당 등 볼거리들이 많다.

조상들의 옛 정취를 뒤로 하고 길을 나서면 영양읍에 도착한다. 지방 소도시만이 줄 수 있는 넉넉한 웃음이 있다. 고추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재미있다.

영양은 감천축백수림·검마산자연휴양림과 같은 자연과 이문열 선생의 고향이기도 한 두들마을, 그의 문학연구소인 광산문학연구소·음식디미방(가장 오래된 한글조리서)을 쓴 안동 정부인에절관 등 찾아볼수록 그 끝이 안 보인다.

뜯을수록 달콤하고 얇은 빵 줄기가 나타나는 파이처럼 영양은 정말 ‘영양만점’의 여행지다. ♥

시트콤, 흐뭇하게 살 수 있는 여유

요즘 나의 하루는 MBC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마무리 된다. 시트콤을 보고 한바탕 웃으면 하루가 정리되는 기분. 그건 이 작품의 연출자인 김병욱 감독이 지난 10년간 내게 준 행복 같은 것이다. SBS <순풍 산부인과> · SBS <똑바로 살아라> · MBC <거침없이 하이킥> 등 그의 일일시트콤을 보다보면 그 순간만큼은 작은 행복 같은 것을 맛볼 수 있다. 김병욱 감독의 시트콤이 단지 웃겨서만은 아니다. 그의 시트콤에서 유발되는 웃음은 우리의 인생이 겹쳐져 만들어낸 순간의 희극 같은 것이다.

<지붕 뚫고 하이킥>은 김병욱 감독의 작품 중에서도 유독 그런 힘이 두드러진다. <지붕 뚫고 하이킥>은 전작들보다 훨씬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 보여준다. ‘서운대’ 출신의 황정음은 이순재의 딸 이현경이 자신을 ‘서운대’ 학생으로 착각하고 과외교사로 고용하자 자신의 학벌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돈 한 톨 없는 채로 서울에 올라와 이순재의 집에서 기거하며 가정부 일을 하는 신세경은 돈이 없어 동생에게 학용품을 사주지 못하자 많이 먹기 대회에 나가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상금을 받는다. 그들은 각각 사랑도 하고, 꿈도 있지만 학벌이나 돈 같은 것들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 이현경의 딸인 해리가 욕심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지려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무슨 수를 쓰든 괴롭히려는 극악한 성격을 가진 건 이 때문일 것이다. 부모들부터 마음보다 물질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에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욕심밖에 없지 않을까.

아침 식사 외에는 가족들이 좀처럼 모이기도 어려운 시대. 이현경의



딸은 부모와 오빠들에게 놀아달라고 조르지만,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붕 뚫고 하이킥>은 이 건조한 가족의 풍경 안에서 따뜻한 웃음을 담아낸다. 이순재의 사위 정보석은 늘 머리가 나쁘다는 편지를 들고, 나쁜 머리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열렬히 사랑했던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낸다. 집에서는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 사위나 괴롭히던 이순재는 김자옥을 만나며 황혼의 로맨스를 꿈꾼다. 집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방귀를 끼고, 사위에게 발길질을 하던 이순재는 김자옥 앞에서만큼은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한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자기 인생뿐인 사람들도 결국 타인과의 감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붕 뚫고 하이킥>은 기존의 홈드라마처럼 가족을, 그리고 세상을 무조건 아름답게만 그리지 않는다. 하지만 ‘막장 드라마’처럼 세상이 소수의 선과 악, 또는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에 휘둘리며 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요즘 현대인들이 어디서도 얻기 힘든 위안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퇴근 뒤에는 <지붕 뚫고 하이킥>을 볼 것이다. 힘든 세상, 그리고 세상에 찌들어 점점 더 힘들게 사는 내 생활 속에서 그래도 내가 나쁘지 않게 살고 있음을, 그리고 흐뭇하게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니 말이다. ♥

강원도의 겨울나기



10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 콘서트 연습을 마무리하고 영월로 향했다. 토요일 새벽에 떠나도 괜찮았지만 목감기 뒤끝이 깨끗하지 않아 어떡하든 피곤을 덜기 위해서 미리 떠났다. 밤 운전이라 3시간 걸려 영월에 도착했다. 숙소에서 자는데 냉기가 어느새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침 촬영, 몸이 덜덜 떨렸다. 아하! <시골밥상>을 찍은 지가 벌써 1년이 됐네. 다시 추위로 고생하겠구나. 강원도로 가서 촬영을 하면 겨울엔 특히 그 지역의 너른 부엌에 감탄을 하게 된다. 조금만 눈이 와도, 적어도 한 달은 일체 오도 가도 못 하고 갇히니까(눈이 제법 오면 한 석 달 꼼짝 못한다.) 모든 동선이 집안에서 마무리가 된다. 부엌바닥에 물기가 조금 있어도 그제 얼어붙으니까 바닥은 물기 있으면 안 된다. 마당 밖으로 나갈 일도 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 안방 · 건넌방 · 툇마루식의 일자구조 집에서는 툇마루와 부엌 사이에 출입문을 달아바깥 공기 쐬지 않고 부엌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다. 되도록 추위에 노출 안 되도록 안배되어 있다. 두께가 좀 있는 일자형 집 구조에선 문지방에서 땀돌 딛고 내려가면 반듯한 네모의 작은 흙마당이 있고, 몸을 왼쪽으로 틀면 부엌, 오른쪽으로 틀면 바깥세상... 마당이 나온다. 통기 때문에 맞창이 있어 그을음 · 매운 연기가 잘도 빠진다. 맞창 중 하나는 뒤란으로 나있어 문지방 건너면 김칫독 묻은 곳 · 장독대 · 뒷간 · 광이 보인다.

이주 에스런 강원도의 너와집은 이미 없지만 너와 대신 이 지방에서 나는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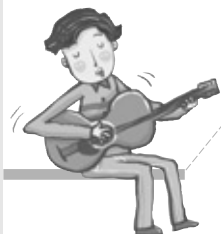
(흑운모)을 엮는다. 구들장 놓기 좋은직한 편편한 돌이 파이처럼 잘 켜지므로 그것으로 지붕을 엮었다. 도끼로 다듬은 나무틀에 흙벽을 바르고, 지붕을 그렇게 없으면 겨울엔 그리도 따뜻했고, 여름엔 시원했다.

강원도에선 눈 내려 갇혀있을 동안 채소며 모든 것이 얼음 땡땡이니까 장아찌를 많이 해두신다. 곰취 · 나물취 · 개두릅 · 참도술취 등 귀한 산나물 향연이었다. 그 모든 장아찌는 봄부터 준비된다. 우선 개두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취 순서인데,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씻으면서 가지런히 꼭지대로 해서 양 손바닥 사이에 놓고 꼭꼭 누질러 그릇에 담은 뒤 간장 1공기, 설탕 1공기, 식초 1큰술 비율로 부어놓으면 끝. 중간에 한번 장 달여 다시 부어 넣으면 안심이라셨다.

따뜻한 밥하고, 하나하나 맛보는데 참도술취가 가장 좋았다. 자기 향이 강하지 않아 밥하고 다른 반찬하고도 잘 어울렸다. 또한 장아찌해서 먹는 것보다 금세 따와서 나물 무쳐 먹으면 그 맛은 아무것도 안 부럽다고 하셨다. 삶아서 무칠 땐, 찬물에 행구면 쓴맛 등이 더해지므로 따뜻한 물에 씻어서 따뜻하게 무쳐야 맛난다셨다. 큰 그릇 한쪽에 나물 놓고, 옆으로 빈 공간 남겨 거기 우리 집간장 · 들기름 · 깨보송이 · 파 · 마늘 조금해서 양념 먼저 해놓고, 나물을 슬금슬금 무치면 고기반찬이 부럽지 않다.

할아버지 연세는 여든이신데, 장작 패는 뒤태는 40대 청년이시다. 술 · 담배 안하시고, 집안일 고수시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산골에서 어떻게 살아요?” 할머님 말씀.

11월 15일 김장하실 건데, 배추는 7점 심어놓았고 파 · 부추 · 갓 · 마늘 등등 준비완료란다. 6남매가 모두 와서 자기들이 담고, 죄 죄 담아 실어가고, 엄마 · 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간다. 물난리 때 30여 가구가 거반 떠내려가고, 4가구 여덟 분이 지키는 산골마을. 공기가 정말 그리도 달고, 거침없었다. 조용하기가 정말 고요 자체였다. ♥



잘 쉬는 법

오랫동안 쓰던 인터넷라인이 영 마음에 안들어 큰맘 먹고 갈아치웠다. 어떤 한 회사와 오랫동안 변함없이 쓰던 것을 다른 회사의 전용선으로 바꾼다는 것이 웬지 배신 같기도 하고, 느닷없이 콧소리를 내며 죄송하다는 그 담당자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 무던히 참고 참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랬더니 경품을 준다고 몇 번씩 전화를 해서는 고르시라고 난리다. 관심도 별로 없는데도 추석 전에 못 보내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화지만 두 손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는 듯하다.

어느 날, 집 앞에 자전거가 서 있었다. ‘아, 이것이 그 선물인가보다’ 하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갔다. 20일 정도 지났어도 아무도 타지 않고 위치도 그냥 그 자리였다.

10월 중순 어느 토요일, 갑자기 촬영이 취소되는 바람에 뭘 해야 할지 몰라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다. 부셨다 야단을 하다가 결국 여행가는 것은 웬지 다음 날 촬영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오랜만에 인사동을 나가 보기로 아내와 합의를 봤다. 나가는 길에 을지로 3가에 들러 최근 주방에 만든, 음식 건조하는 서랍에 살균등을 설치하기 위해 등과 기타부속을 샀다. 나는 일거리가 생기면 웬지 살짝 흥분기가 몸 안에 돈다. 인사동에 갔다가는 전시장은 두 곳만 들르고 서둘러 집으로 왔다.

살균등과 부속을 연결해 전기에 꽂았더니 파르스름한 불이 들어오면서 살

균이 되는 것처럼 따뜻했다. 싱크대 밑에 들어가서 살균등을 켜 채로 뒤쪽에 고정하고 전기선을 정리하는데, 30여 분 정도 걸린 것 같다. 뿌듯하게 아내를 쳐다보았으나 아내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다지 감동하지 않은 눈치다.

그리고 새벽. 눈에 모래가 굴러가는 것 같은 고통에 깨어보니 새벽 4시경이었다. 화장실 불을 켜고 얼굴을 보니 눈은 통통 부었고, 눈동자는 새빨개져 말 그대로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 순간 실명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몰려왔다. 눈은 아파 감을 수도, 뜸 수도 없었다. 몇 시간 후 촬영인데 이 꼴이라니 걱정이 됐다. 왜일까, 오늘 다녔던 길을 다시 밟아보며 눈에 감염될 만한 곳이 어디였나 되짚어 보아도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계속 설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최근에 ‘안과검사를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다. 시력이 그렇고 뭘지 모르지만 상태가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들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의 공포의 시간이 가고 침착하게 생각해 보니 살균등이 의심스러웠다. “눈으로 보지 마세요” 했던 전구가게 점원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역시 살균등이 문제였다. 자외선이 강력하게 나오니 얼굴도 타고 손등도 탔는데, 눈동자 각막인들 안전할까. 내 후배가 있는 병원에 실려 갔다. 일요일인데도 선배의 부탁을 받고 출근한 후배의사는 무식하기 그지없다는 표정이다.

촬영도 취소하고 얼음찜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여러 가지 후회가 들었다. 그냥 빈둥거리며 잘 쉬었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 아닌가! 나는 왜 쉬지 못하는 걸까. 토요일 그날,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오랜만에 맞은 휴가인데 그냥 좀 쉴 걸 하는 후회와 함께 문 앞의 자전거가 떠올랐다.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 나는 계속 달리고 있다. 정지하면 쓰러질까 두려워 하면서. 그러나 집 앞의 자전거는 잘 서 있었다. 반침대가 있으니. 나도 정지하면 지금껏 나에게 안 보이던 반침대가 나타나 잘 서 있을 수 있을 텐데. 나에게도 한번쯤은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 ♥

엄마를 위해 울어주는 딸



엄마가 강원도에 간 지 1년 하고, 2개월이 지났
다. 그동안 서너 번쯤 가보았던가. 중간에 엄마가
올라오기도 했고, 몸도 안 좋았고, 일도 바빴고... 이래저래 구차한 이유
들이 있긴야 하지만 실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으리라. 나이 오
십. 차매에 걸린 할머니의 바람대로 단둘이 시골에 내려가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작년 8월, 엄마의 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던 날 나는 내다보지 않았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짐 실는 소리, 트럭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 트
럭이 출발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조용히 방문을 열고 뺑뺑한 마음에 눈물
을 쏟아냈다.

그 후 “잘 지내니?” 하는 목소리에 “그렇 리가 없잖아. 나도 엄마가
필요하니까” 하며 울먹이기 일쑤였고, 차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놀라
전화를 걸었더니, 사고 당시에는 의연했다던 엄마가 내 목소리를 듣자
마자 아이처럼 엉엉 울기도 했다.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고 울면, “울어
주는 딸이 있어 좋다” 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던, 그렇게 눈물샘
마를 날 없던 모녀의 아픈 1년이 지나갔다.

지난 주말, 아침 일찍 운전대를 해서 엄마에게 갔다. 이제는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거나 울지 않을 자신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단지 엄마

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이 가득해 가지 않을 수 없
었다.

혼자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던 엄마는 마치 시골
에서 몇 년은 살았던 사람마냥 밭에서 따온 호박을 찌르고 더덕을 무쳐주
며 뿌듯해했다.

방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리라, 할머니와는 이야기 한 마디
나누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나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마당에 잔
디 다섯 줄을 심었고, “할머니, 이 잔디 열심히 밟아. 동네 돌아다니다 길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이거 밟으면서 운동해” 하는 내 말에 어린이이처
럼 고개를 끄덕이는 할머니를 한번 안아주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전에 경험한 프로그램들과는 또 다른 감동과 재미가 있는 곳이
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 라디오 주파수가 잡
히지 않는다는 엄마를 위해 컴퓨터에 인터넷 라디오 미니를 깔아주고
온 것이다. ‘이사연 진짜 슬프다’, ‘너무 재밌어’, ‘이 분은 나랑 비슷
하네’ 생방송 중 수시로 짹짹한 문자들이 쏟아진다. 졸지에 멀리 있는
모녀의 징검다리라 된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중 위안이 되고 행복이 되어주어 고맙다, 기
쁘다 하시는 프로그램을 향한 연서들이 참 많다. 조금 이른 듯하지만
<여성시대>에 남기는 첫 번째 글을 통해 나 역시 고백하고 싶다. 2009
년 가을, <여성시대>를 만나게 되어 참 고맙다. 나의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거나 역시 너무나 기쁘다. ♥

피에르 보나르의 <욕조 속의 누드>

색채의 미술사로 불리는 화가 피에르 보나르(Pierre Bonnard, 1867~1947). 그에 게는 영원한 모델 마르트 부르쟁(Marthe Boursin, 1869~1942)이 있었다. 보나르가 마르트를 처음 만난 것은 1893년. 보나르의 나이 26세, 마르트의 나이 24세 때였다. 보나르는 모델로서 마르트가 썩 마음에 들었다. 늘 가까이 두고 그녀를 그렸으며, 결국에는 서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보나르는 오랫동안 그녀를 공식적인 반려로 삼지 않았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것이 1925년의 일이니, 무려 32년간 동고동락하면서도 합법적인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던 것이다. 보나르가 말년에 마르트와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무엇보다 그녀에 대한 고마움의 발로였다고 한다. 그동안 자신의 예술이 이뤄낸 풍성한 성취 앞에서 화가는 마르트의 공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보나르의 작품에서 마르트의 이미지를 가장 잘 대표하는 장면은 그녀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보나르가 앵티미스트(Intimist : 사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이나 사물을 개인의 정감을 강조하여 그리는 화가)란 별명을 얻은 것도 바로 마르트의 남다른 목욕 취미 등 그녀의 사생활을 즐겨 표현했기 때문이다.

<욕조 속의 누드>(1941~1946)는 보나르가 마지막으로 그린 마르트의 이미지다. 마르트는 욕조 속에 편안히 누워 한가한 시간을 즐기고 있다. 물속으로 풀어진 그녀의 몸은 보석보다 더 영롱하고 그녀로부터 퍼져나가는 광채는 무지개보다 더 찬란하다. 이 무렵 마르트의 욕실은 실제로는 하얀색이었다고 하는데, 화가에게는 이렇듯 무지갯빛으로 비쳤으니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화려한 광원(光源)이었는지 알 수 있다. 오랜 사랑만이 빛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 수 없다. ♥



* 보나르, <욕조 속의 누드>, 1941~1946, 캔버스에 유채, 122x151cm, 카네기 미술관